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연음 현상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탕 허 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연음 현상을 중심으로 -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탕 허 난

인 준 서

탕허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연음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에서 음절들이 결합할 때, 앞 음절이 폐음절이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연음이 일어난다. 연음은 낱말 내에서도 일어나지만 특히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나 용언의 활용에서 즉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할 때 더 생산적으로 일어난다. 한국어는 조사의 사용빈도가 높고 용언의 활용에서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자주 결합된다는 점에서 연음 현상의 출현빈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중국어에서 연음이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연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연음에 대한 교육과 연습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 두 언어의 음운적 특성을 대조하고 직접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음 발음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음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이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 음절 구조, 연음 현상을 비교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체계와 음운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고, 그 차이점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유형을 예측하였다.

Ⅲ장에서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고의 실험은 산출 실험과 지각 실험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산출 실험은 중국인 초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각 15명을 선정하고, 피험자들이 배운 교재 음운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한 읽기 자료로 발음 실험을 하였다. 지각 실험은 표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산출

실험의 녹음 자료를 청취한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 대로 음소전사를 하였다. 본고는 이 음소전사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발음 양상을 정리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 추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초급 단계의 오류에서 대치, 첨가, 탈락, 절음의 오류가 전반적으로 나타났지만 고급 단계의 오류에서 첨가와 절음의 오류만이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 개별 자음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치의 오류가 나타나고, 모국어 간섭과 한국어 연음 규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첨가, 탈락과 절음의 오류가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는 청각적인 영향, 연음 현상과 /ㄴ/음 첨가 현상의 혼동으로 인해 첨가의 오류가 나타났고, 한·중 한자어를 대응하여 외우기 때문에 첨가와 절음의 오류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V장에서는 Ⅳ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숙달도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모형을 선정하였다. 초급 단계에서는 연음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선행 중성 자음의 발음 지도를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했고, 고급 단계에서는 첨가와 절음의 오류 원인 발견과 연음 발음 연습을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토대로 모색한 연음 발음 교육 방안은 그동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음 교육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실정에 기반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대상 및 범위	7
II.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적 특성	9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	9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15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연음 현상	20
III. 실험 방법	23
1. 산출 실험	23
1) 피험자	23
2) 녹음 문장	26
2. 지각 실험	31
1) 피험자	31
2) 판별 방법	32
IV.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 양상	33
1. 전체적인 경향	33

2. 초급 단계	35
3. 고급 단계	48
V. 연음 교육 방안 모색	52
1. 교육 내용 및 방법	52
1) 초급 단계 교육 내용 및 방법	53
2) 고급 단계 교육 내용 및 방법	55
2. 교육 방안 제시	57
1) 초급 단계 교육 방안	57
2) 고급 단계 교육 방안	66
VI. 결론	7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1

부 록 2

표 목 차

<표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10
<표 2> 중국어의 자음 체계	11
<표 3> 조음위치별 한·중 자음 대조	12
<표 4> 조음방법별 한·중 자음 대조	13
<표 5> 한국어의 음절 유형	16
<표 6> 한국어 음절말 자음중화 대조표	17
<표 7> 중국어의 음절 유형	18
<표 8> 한중 음절구조 대조표	19
<표 9> 한국어의 연음 현상	20
<표 10> 중국어 '啊/a/'의 연음 유형	21
<표 11> 초급 피험자 기본 정보	24
<표 12> 고급 피험자 기본 정보	25
<표 13 > 초급 단계 녹음 문장	26
<표 14 > 고급 단계 녹음 문장	28
<표 15> 지각 실험자 정보	31
<표 16> 초급·고급 단계 연음 발음 오류수 비교	33
<표 17> 초급 단계 대치 오류 유형별 및 오류 빈도	35
<표 18> 초급 단계 대치 오류 양상(1)	36
<표 19> 초급 단계 대치 오류 양상(2)	38
<표 20> 초급 단계 대치 오류 양상(3)	39
<표 21> 초급 단계 첨가 오류 양상	41
<표 22> 초급 단계 탈락 오류 양상	45
<표 23> 초급 단계 절음 오류 양상	46
<표 24> 고급 단계 첨가 오류 양상	49
<표 25> 고급 단계 절음 오류 양상	50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어의 음절 구조	15
<그림 2> 중국어의 음절 구조	17
<그림 3> 지각 평가 예시	32
<그림 4> 초급·고급 단계 연음 발음 오류율	34
<그림 5> 초급 단계 첨가 유형별 비율	41

I. 서 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연음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에서 음절들이 결합할 때, 앞 음절이 폐음절이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연음이 일어난다. 연음은 낱말 내에서도 일어나지만 특히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나 용언의 활용에서 즉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할 때 더 생산적으로 일어난다. 한국어는 조사의 사용빈도가 높고 용언의 활용에서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자주 결합된다는 점에서 연음 현상의 출현빈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¹⁾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연음 현상을 습득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어에서는 연음 금지가 아주 강력한 규칙이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연음 현상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음 교육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어 발음 교재에서 연음 현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발음 교육 현장에서도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 발음 교육과 받침 발음 교육을 진행하고 난 뒤 연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한 소개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²⁾ 이는 한국어의 연음 발음이 숙달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원어

1) 천영수(2003:5)에서 인용.

2) 본고의 실험 대상이 배우는 한국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편집하고 세계도서출판사에서 출판한 『한국어교정 1』를 보면 연음 현상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韩国语的收音(除ㅇ, ㅎ以外)在与后面的元音相连时,收音便移到后面的音节上,与之拼成一个新的音节,这一现象叫做连音现象.' 정의를 제시한 다음 흘받침 중성의 연음 예시 6개를

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할 것이라고 보는 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숙달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연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적 특성을 비교하고, 실제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음 발음을 녹음하여 오류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한국어의 연음 현상을 중심으로 숙달도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왔던 연음 교육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발음교육 방법론의 기반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그동안 한국어 연음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음 교육에 대한 연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음 교육에 관한 연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한국어 연음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음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겠다. 이에 관한 연구에는 박숙희(2013), 한재영 외(2005), 전나영(2007)과 허용·김선정(2006) 등이 있다.

박숙희(2013)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음의 정의를 내렸다. 음절들이 결합하여 단어가 될 때, 앞 음절이 폐음절³⁾이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연

제시하였다. 연습 단계에서 겹받침 중성의 연음 연습을 16개를 제시하였다.

3) 한국어의 음절은 중성 자리에 자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개음절과 폐음절을 구별할 수 있다. 개음절은 중성이 비어 있는 음절이고 폐음절은 중성에 자음이 하나 이상 오는 음절이다.

음이 일어난다. 앞 음절의 종성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을 '연음'이라고 한다. 또한 연음 교육의 목표는 단어 안에 일어나는 연음 현상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음 교육법으로는 연음의 원리를 제시한 후, 통사적 단어와 어휘적 단어⁴⁾의 연음을 비교하고, 연음의 예외 현상을 제시하였다.

한재영 외(2005)와 전나영(2007)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연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재영 외(2005)에서는 중국어에서는 음절을 경계로 하여 자음과 모음이 연속해도 연음되는 일이 없지만 한국어의 자연발화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연음하여 발음하므로 연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나영(2007)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하나는 맞춤법과 발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어 문장을 읽을 때 모두 맞춤법대로 발음한다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모음과 자음의 개별 발음 이외에 두 음절이 인접하면서 생기는 연음 현상을 포함한 음운 현상에 대해 학습자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허용·김선정(2006)에서는 한국어에서 연음 현상은 지극히 보편적이 것이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받침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발음교육을 일찍,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음 발음을 교육할 때 먼저 초성에 오는 'ㅇ'이 소리가 없는 빈 것임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연음의 교육은 단독으로 발음했을 때 체언의 받침에 변화가 없는 낱말부터 먼저 학습한 후에 변화를 입는 낱말을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음 교육의 활동 유형으로 낱말 읽기, 문장 읽기, 받아쓰기, 게임 활동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4) 박숙희(2013)에서는 자음 뒤에 문법형태소가 이어져 통사적 단어를 형성하고 자음 뒤에 어휘형태소가 이어져 어휘적 단어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도록 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육 연구는 이득춘(1991)에서 시작된 후, 최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에 관한 연구에는 노금송(2000), 하동매(2001), 범류(2010), 장우혁·김길동(2009) 등이 있다.

노금송(2000)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체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히기 위해 음운 체계를 분류한 다음 그 내용들을 서로 비교·대조를 한 후,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음소에 대해 실제조사 과정을 통해 그 가설들을 증명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점들을 한국어의 음소체계, 혼동하기 쉬운 음운, 간섭현상을 받는 음운, 음운 규칙 등으로 나눈 후에 그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동매(2001)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의 구별 문제, 모음 'ㅡ'와 'ㅣ'의 구분 문제, 그리고 권설음 문제,⁵⁾ 초분절 음소 문제 중에 중국어 병음 성조가 섞인 문제와 'ㄹ'의 발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체계를 비교하고 두 언어의 차이점을 찾아내게 한다면 발음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범류(2010)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ㄹ' 발음 오류를 음절 구조의 간섭, 음소 분포 제약의 간섭과 음절 결합 제약의 간섭으로 분류하고, 한국어 /ㄹ/과 중국어 /l, r, 兒話現象/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음 사이에 대응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후 그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학습자의 /ㄹ/발음 교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두 차례의 교정 수업을 통해서 발음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장우혁·김길동(2009)에서는 음향음성학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파열음을 어

5) 중국어의 권설음은 'zh[tʂ], ch[tʂʰ], sh[ʂ], r[r]' 네 개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장기적인 중국어 발음으로 인하여 혀가 굳어져 한국어 'ㄹ' 발음을 할 때 보통 중국어의 '兒[er]'로 발음한다. 즉 중국어의 兒話現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떻게 발음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분석하여 그들이 파열음을 발음하는 데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경음을 발음하는 데 비슷한 음향적 특성을 보이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평음과 격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밝혔다.

음운 규칙의 교육에 관하는 유정(2011)에서는 한국어 음운 변동을 정리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운 변동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음절 경계에서만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 중에 '연음 현상,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격음화' 6개를 선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 중국인 학습자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발음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교육 순서를 '연음 현상→경음화→비음화→구개음화→격음화→유음화'로 정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설교(2013)에서는 초·중·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실험을 실시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유음화, 경음화, 연음 등 음운 현상의 적용오류를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이 대부분 음운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음운 규칙들에 대해 학습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음운 규칙을 잘못 적용하는 양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음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연음 현상에 관한 연구는 양순임(2007), 김진석(2013), 한서인(2011), 마려평(2013) 등이 있다.

양순임(2007)에서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연음 오류 원인을 찾기 위해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음을 대조하여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중국인 학습자가 연음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가 '동일 자음 첨가. 탈락, 대치, 절음'⁶⁾ 등이 있다고 밝

히고, 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자음의 지속시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홀자음과 중복자음에 대한 변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진석(2013)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초급과 중급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중성 발음과 연음의 오류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겹받침 발음의 경우 학습자들이 한 개의 자음을 선택해서 발음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어떤 자음을 선택해서 발음해야 하는 것인지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성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연음→구개음화→실질 형태소와 결합→/ㄴ/음 첨가'의 교육 순서를 제시하였다. 양순임(2007), 김진석(2013)에서는 모두 실험을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연음 발음 오류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지만 그 오류를 개선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한서인(2011)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연음 발음 실험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고급 학습자들이 연음 발음에서 집중된 오류 양상이 절음 오류와 동일 자음 첨가 오류인 것으로 밝힌 뒤 철자법과 음운규칙으로 인한 기본형과 표면형의 차이는 발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한·중 /ㄴ/과 /n/의 차이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청취적인 혼동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결론으로 연음 규칙에 대한 학습 단계별로 교육 방안을 제출하였지만 연음 현상의 제시 순서와 이유만 설명하고 연습 모형을 제시를 하지 못하였다.

마려평(2013)에서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중성 뒤에 실질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원인을 학습자들이 연음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다. 교육

6) 양순임(2007)에서는 해당 자음을 하나 더 첨가하여 중복자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동일 자음 첨가라고 하고, 연음 규칙에 해당하는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 탈락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자음으로 대치하여 연음하는 것이 대치라고 하고, 연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끊어서 발음하는 것이 절음이라고 하였다.

방안에서는 연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종성 뒤에 실질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종성 뒤에 형식형태소가 오는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중급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인 대상으로 한 연음 교육 연구에서는 선행 종성의 분류가 전면적이지 않고 연음규칙이 적용된 음운환경도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도 순서만 제시하고 숙달도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행 종성에 따라 다양한 음운 환경을 포함한 녹음 자료로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음 발음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숙달도에 따른 연음 발음 교육 방안과 활동유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범위

한국어의 종성을 가진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연음이 실현된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이러한 연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음을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어의 연음은 주로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와 연결되는 경우, 어휘형태소가 어휘형태소와 연결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연음될 때 선행 종성의 발음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 후자는 형태소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행 종성의 발음 변화가 생긴다. 전자는 한국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면에 후자는 그렇지 않다.⁷⁾ 따라서 본고에서 어휘형태소와 어휘 형태소의 결합형은 제외하고 보다 생산적인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결합형만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 앞에서 연음규칙이 적용된 자음은 /ㅇ/, /ㅎ/을 제외한 한국어의 장애음과 공명음을 포함한다. /ㅎ/은 '좋아요'에서처럼 탈락하고, /ㅇ/은 '빵은'에서처럼 종성으로 발음된다는 점에서 연음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은 /ㅇ/, /ㅎ/을 제외한 다른 종성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가 이어질 때의 연음 현상이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별 연음의 발음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출 실험을 하였다. 학습 단계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초급 단계와 고급 단계로 나누어 실험한 후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연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적 특성을 비교하여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교육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험 방법론을 제시한 뒤, IV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정리하면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V장에서는 IV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숙달도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양순임(2007)에서 /웃안/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음절끝소리규칙(음절말 자음중화)과 연음규칙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런 예는 많지 않다고 하였다. 김길동(2008)에서 /갯일/과 같은 예는 형태음소론적 정보에 따라 연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ㄴ'첨가, 중화, 비음화의 음운 규칙이 함께 적용된 예라고 하였다.

Ⅱ.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적 특성

성인 학습자는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내재화된 자신의 모국어의 음운체계가 목표어 학습에 간섭을 일으켜 발음오류를 쉽게 유발한다. 한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개별 음소의 발음에서 오는 차이,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절구조의 차이, 상이한 음운현상이나 초분절적 요소 등이 있다(허용·김선정 2006:17).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연음 발음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 음절 구조를 대조하고, 두 언어의 연음 현상을 살펴본다.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

자음(子音, consonant)은 공기가 입 안에서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이진호 2005:39). 한국어의 자음체계는 모두 19개의 자음 음소로 구성되어 있다.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⁸⁾

8) <표 1>는 허용·김선정(2006:46)에서 인용한 것이다. 자음의 분류에 있어서 그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모든 인간언어의 연구에 적용되는 보편적(language universal)인 기준이다. 그런데 발음을 조음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으로 나누는 것은 언어 보편적 기준이지만, 장애음을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누는 기준이나 평음과 경음, 격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해당하는 언어에만 적용되는 특별한(language specific) 기준이다.

<표 1> 한국어 자음 체계

조음방법 \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비음	유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p]	ㄷ [t]		ㄱ [k]	
		경음	ㅃ [pʰ]	ㄸ [tʰ]		ㄲ [kʰ]	
		격음	ㅍ [pʰ]	ㅌ [tʰ]		ㅋ [kʰ]	
	마찰음	평음		ㅅ [s]			
		경음		ㅆ [sʰ]			
		격음					ㅎ [h]
	파찰음	평음				ㅈ [tʃ]	
		경음				ㅉ [tʃʰ]	
		격음				ㅊ [tʃʰ]	
공명음	비음	ㅁ [m]	ㄴ [n]			ㅇ [ŋ]	
	유음		ㄹ [l/r]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어 자음은 조음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과 유음 등 5종류로 나누어지며, 그 중에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자음 중에서도 심한 장애를 일으켜 발음되기 때문에 장애음이라고 부른다. 장애음은 다시 기의 세기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분한다. 발음할 때 격음은 성문에서 강한 기류를 동반하며 발음되고, 경음은 성대가 긴장되어 발음되는데 격음과는 달리 성문으로부터 강한 기류가 나오지는 않는다. 평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양은 격음과 경음의 중간 정도이다. 조음위치에 따라서는 양순음과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등 5종류로 나누어진다. 한국어 자음의 조음방법과 조음위치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한국어 자음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른 언어는 장애음이 대개 유성음과

무성음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한국어는 평음, 경음과 격음 3종류로 분류되며, 이들은 모두 무성음이다. 양순파열음을 예로 들어 보면, 영어는 /p/와 /b/ 두 종류의 소리가 있는 반면, 한국어에는 /ㅍ/, /ㅃ/, /ㅑ/의 세 종류의 소리가 있다. 영어와 같은 경우는 성대의 진동 유무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2분되고 한국어는 발음할 때 기식성과 세기의 정도에 따라 평음, 경음과 격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어 자음체계를 살펴보겠다. 중국어 표준어⁹⁾의 자음은 22개이고,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성대 진동의 유무, 기식의 유무에 따라 다음 <표 2>¹⁰⁾과 같이 분류된다.

<표 2> 중국어 자음 체계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조음	권설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파열음	무기·무성	b[p]		d[t]				g[k]
	유기·무성	p[p']		t[t']				k[k']
마찰음	무성		f[f]		s[s]	sh[s]	x[ç]	
파찰음	무기·무성				z[ts]	zh[tʂ]	j[tɕ]	
	유기·무성				c[tɕ']	ch[tʂ']	q[tɕ']	h[x]
비음	유성	m[m]		n[n]				ng[ŋ]
유음	유성			l[l]		r[ʀ]		

9) 중국어는 7 대 방언 즉 관화방언(官話方言), 오어(吳語), 감어(贛語), 객가어(客家語), 민어(閩語), 월어(粵語), 상어(湘語)로 나누는 분류(袁家驊 2001)가 중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중국의 관화언어인 표준어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중국어 표준어를 본고에서 중국어로 부르겠다.

10) <표 2> 중국어의 자음체계표는 林燾·王理嘉, 『語音學教程』(2013) pp.77-79 普通話的輔音의 내용에 따라 정리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중국어 자음은 조음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과 유음 등 5종류로 나누어지며, 그 중에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무성음이고, 비음과 유음은 유성음이다. 또한 파열음과 파찰음은 발음할 때 기식의 수반 여부에 따라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자음 체계상의 차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무성음을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조음위치에 따라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조음, 권설음, 경구개음과 연구개음 등 7종류로 나누어진다. 조음위치에 따른 분류를 보면 중국어에는 후음이 없지만 한국어에 없는 순치음과 권설음이 있다. 권설음을 발음할 때 혀끝이 닿는 위치가 경구개이기 때문에 한국어 /ㄹ/을 발음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아래 <표3>에 제시하였다.

<표 3> 조음위치별 한·중 자음 대조

언어 조음위치	한국어	중국어
양순음	ㅂ[p], ㅃ[pʰ], ㅍ[pʰ], ㅁ[m]	b[p], p[pʰ], m[m]
순치음		f[f]
치음		d[t], t[tʰ], n[n], l[l]
치조음	ㄷ[t], ㄸ[tʰ], ㅌ[tʰ], ㅅ[s], ㅆ[sʰ], ㄴ[n], ㄹ[l/r]	s[s], z[ts], c[tsʰ]
권설음		sh[s], zh[ts], ch[tsʰ], r[ʃ]
경구개음	ㅈ[tʃ], ㅉ[tʃʰ], ㅊ[tʃʰ]	x[ç], j[tɕ], q[tɕʰ]
연구개음	ㄱ[k], ㅋ[kʰ], ㆁ[kʰ], ㅇ[ŋ]	g[k], k[kʰ], ng[ŋ], h[x]
후음	ㅎ[h]	

<표 3>에서 보듯이 조음위치의 면에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위치들을 중국어에서는 모두 사용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음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의 /ㅅ, ㅆ/은 치조음이고 /ㅈ, ㅉ, ㅊ/은 경구개음이지만 중국어에서 이들과 대응하는 성모 /s, z, c/는 모두 치조음이다. 이러한 조음위치의 차이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ㅅ, ㅆ, ㅈ, ㅉ, ㅊ/을 발음할 때 혼동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중국어의 과찰음 /h/는 연구개음이고 한국어의 /ㅎ/은 후음이다. 한국어의 /ㅎ/은 후행하는 모음의 영향을 많이 입어 조음 위치가 다양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h/는 후행하는 모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조음 위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한국인 화자가 중국인 학습자의 /ㅎ/의 발음을 들을 때는 한국인 화자의 /ㅎ/발음보다 뚜렷해서 부자연스런 느낌이 있다.

<표 4> 조음방법별 한·중 자음 대조

조음방법 \ 언어		한국어		중국어	
		평음	경음	무기 무성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p], ㅌ[t], ㄱ[k]		
		경음	ㅃ[pʰ], ㄷ[tʰ], ㄲ[kʰ]	무기 무성	b[p], d[t], g[k]
		격음	ㅍ[pʰ], ㅌ[tʰ], ㅋ[kʰ]	유기 무성	p[pʰ], t[tʰ], k[kʰ]
	마찰음	평음	ㅅ[s]		
		경음	ㅆ[sʰ]	무성	f[f], s[s], sh[s], x[x]
		격음	ㅎ[h]		
	파찰음	평음	ㅈ[tʃ]		
		경음	ㅉ[tʃʰ]	무기 무성	z[ts], zh[ts], j[te]
		격음	ㅊ[tʃʰ]	유기 무성	c[tsʰ], ch[tsʰ], q[teʰ], h[x]
공명음	비음	ㅁ[m], ㄴ[n], ㅇ[ŋ]		m[m], n[n], ng[ŋ]	
	유음	ㄹ[l/r]		l[l], r[r]	

조음방법의 면에서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 경음과 격음으로 나누는데 중국어의 무성음은 무기무성음과 유기무성음으로 나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경음과 거의 차이가 없는 무기무성음이 있지만 한국어의 평음과 비슷한 발음이 없다.¹¹⁾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평음 발음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 평음 발음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바꾸다[빠꾸다] 다르다[따르다] 과자[꽈자]
 시간[씨간] 자르다[짜르다]

이러한 평음 발음 오류를 연음 발음에 적용할 때도 나타난다.¹²⁾

- 2) 옷이[오씨] 집에[지빠] 책은[채근]
 받을[바뜰] 찾으러[차뜨러]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명음은 모두 비음과 유음으로 나누어진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에 비음이 많이 섞인 것을 알 수 있는데,¹³⁾ 이는 중국어의 비음 중 /n/는 한국어의 /ㄴ/보다 비음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유음 /ㄹ/은 음절초나 음절말에서는 설측음[l]로 발음되고 모음 사이에서는 탄설음[r]로 발음된다. 중국어에서는 유음이 두 개 있는데, 음절초에만 나타나는 /l/[l]과 음절초와 음절말에 모두 올 수 있는 /r/[r]이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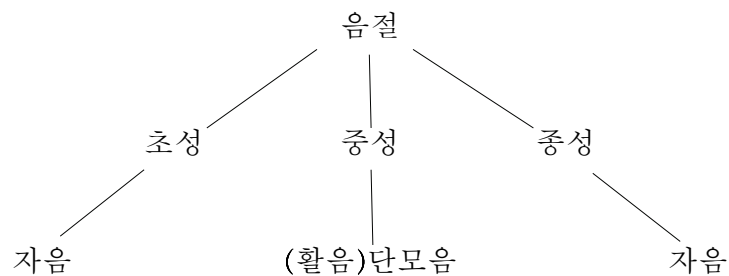
11) 냉리나(2014)에서도 한국어의 평음 /ㅂ, ㄷ, ㄱ, ㅅ, ㅈ/은 중국어에 없는 음소인 것을 지적하였다.
 12) 한국어의 발음에서는 유성음 사이에 있는 /ㅂ, ㄷ, ㄱ, ㅅ, ㅈ/과 같은 평음들이 연음규칙이 적용되면 유성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유성음화가 일어나도 경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이러한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으로 인하여 이루는 오류라고 본다.
 13) 양순임(2007)에서 중국인 학습자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 중성 /ㄴ/과 후행 모음의 연음 오류 분석을 참고하였다.

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절말에 오는 설측음 [l]을 발음할 때 권설 유음 /r/[ɾ]로 대치하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다룬 한·중 자음 체계의 차이점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음을 발음할 때 다른 음으로 대치하는 오류를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음절(音節, syllable)은 음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하위의 음운론적 단위, 즉 가장 하위의 운율 단위이다(신지영, 차재은 2003:122).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初聲, initial), 중성(中聲, medial), 종성(終聲, final)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성과 종성의 자리에는 자음이 오고 중성의 자리에는 모음만이 올 수 있다. 자음이 없어도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모음이 없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그림 1> 한국어 음절 구조

한국어의 음절 유형은 자음(Consonant), 모음(Vowel), 활음(Glide)의 결합 방식에 따라 8가지 유형이 구분된다.¹⁴⁾

<표 5> 한국어 음절 유형

1. V-형	아, 오, 이, 우
2. CV-형	무, 초, 파, 호
3. GV-형	야, 요, 와, 왜
4. VC-형	육, 울, 음, 인
5. CGV-형	혀, 며, 교, 뉴
6. CVC-형	각, 몸, 성, 굴
7. GVC-형	약, 엄, 용, 울
8. CGVC-형	향, 떨, 경,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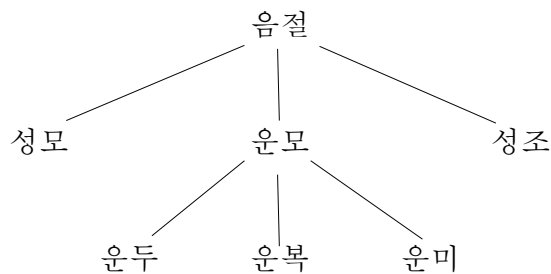
<표 5>를 통해서 한국어의 자음과 활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하여야 음절을 이룰 수 있으며 자음이나 활음 홀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총 19개의 자음 중에서 /ㅇ/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초성에 올 수 있다. 단, /ㄹ/은 '라디오, 러시아' 등과 같은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단어 초에 오지 못한다. 중성에는 하나의 단모음이나 이중모음만이 올 수 있다.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으로 발음된다. 이것은 '음절말 자음중화'라고 한다. 한국어 음절말 자음중화 대조는 <표 6>과 같다.

14) 이진호(2005:89)에서는 한국어의 음절 유형은 <표 5>에서 제시된 8가지 외에 VG-형 즉 하향이중모음 '의'를 포함하여 9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문법론』(2004)에서는 한국어의 음절 유형은 8가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하향이중모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6> 한국어 음절말 자음중화 대조표

표기형	ㄱ	ㅋ	ㆁ	ㄴ	ㅍ	ㅌ	ㅍ	ㅌ	ㅍ	ㅌ	ㅍ	ㅌ	ㅍ	ㅌ	ㅍ	ㅌ
발음형	ㄱ		ㄴ		ㄷ						ㅁ	ㄴ	ㅇ	ㄹ		

또한 자음은 어두와 어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되는 겹자음이 올 수 없다. ‘닭, 흙, 녀’은 ‘자음+모음+자음+자음(CVCC)’의 구조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철자 상 나타나는 것뿐이지 발음을 할 때에는 두 자음 중 하나가 반드시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있는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이해하는 일 외에도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이해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 발음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어의 음절구조를 살펴보겠다.



<그림 2> 중국어 음절 구조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 운모와 성조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초분절 음소는 본 연구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조부분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중국어 자음 중 연구개비음 **ng[lj]** 이외 나머지 21개 자음은 성모로 허용

된다. 중국어의 운모는 단운모, 복운모 또는 비운모가 포함된다.¹⁵⁾ 운모는 운두, 운복, 운미로 구성되고, 운두는 한국어의 활음과 비슷하며 ‘i, u, ü’가 속한다. 운복에는 모든 모음이 올 수 있다. 운두와 운복을 제외한 나머지를 운미라고 한다. 대부분 운미는 모음이지만 자음 n[n], ng[ŋ]만 끝음절에 허용한다. 따라서 중국어 운모는 모음 또는 n[n], ng[ŋ]로 끝난다.

중국어에 가능한 음절 유형은 <표 7>¹⁶⁾과 같다.

<표 7> 중국어 음절 유형(C: 자음 V: 모음 N: 음절말 비음)

	예	병음 구조				
		성모	운두	운복	운미	성조
V	阿[a]			[a]		경성
VV	鴨[ia]			[i]	[a]	1성
VVV	腰[iau]		[i]	[a]	[u]	1성
CV	打[ta]	[t]		[a]		3성
CVV	到[tau]	[t]		[a]	[u]	4성
CVVV	吊[tiau]	[t]	[i]	[a]	[u]	4성
VN	安[an]			[a]	[n]	1성
VVN	彎[uan]		[u]	[a]	[n]	1성
CVN	担[tan]	[t]		[a]	[n]	1성
CVVN	端[tuan]	[t]	[u]	[a]	[n]	1성

15) <한어병음방안>에 따라 중국어 운모는 모두 35개이며 구조로 나눈다면 단운모, 복운모 또는 비운모 3가지가 있다. 단운모는 /a/, /o/, /e/, /i/, /u/, /ü/가 있다. 복운모는 /ai/, /ei/, /ao/, /ou/, /ia/, /ie/, /ua/, /uo/, /üe/, /iao/, /iou/, /uai/, /uei/가 있다. 비운모는 /an/, /ian/, /uan/, /üan/, /en/, /in/, /uen/, /ün/, /ang/, /iang/, /uang/, /eng/, /ing/, /ueng/, /ong/, /iong/가 있다.

16) <표 7> 중국어의 음절 유형표는 林燾·王理嘉 『語音學教程』(2013) pp.101-102 漢語音節結構的特點의 내용에 따라 정리되었다.

<표 7>에서 보듯이 중국어 음절구조가 아래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운복과 성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국어 음절을 이루는 다섯 가지 성분 성모, 운두, 운복, 운미와 성조 중에서 운복과 성조는 필수성분이다.

둘째, 운두와 운복은 모음이지만, 운미는 모음과 자음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며 운미자리에 허용되는 자음은 **n[n]**과 **ng[ŋ]** 두 개만 있다.

셋째, 음소가 가장 적은 경우는 한 개로 구성되고,¹⁷⁾ 가장 많을 때는 네 개의 음소로 구성된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8>¹⁸⁾과 같다.

<표 8> 한중 음절구조 대조표(C: 자음 V: 모음 G: 활음 N: 음절말 비음)

한국어 음절 구조	중국어 음절 구조
V	V
GV	VV
*	VVV
CV	CV
CGV	CVV
*	CVVV
VC	VN
GVC	VVN
CVC	CVN
CGVC	CVVN

17) 중국어에서 성모가 없이 운모만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음절은 '영성모 음절(零聲母音節)'이라고 한다. 중국어 음절구조 중에 'v, vv, vvv, vc, vvc' 등은 모두 영성모 음절에 속한다.

18) 장우균 (2009:22)에서 인용.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음이 음절의 핵심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고, 자음이 음절말보다 음절초에 많이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는데, 중국어는 성모와 운모로 되어있다. 한국어 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만 가능하고, 중국어 끝음절 자음은 /n, ng/의 2개만 가능하다. 중국어에서 끝음절 자음은 /n, ng/ 2개만 허용된다는 것을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n, ng/ 이외에 다른 한국어 종성을 발음할 때 탈락시키거나 중국어에서 그 자리에 허용되는 /n, ng/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학습자들은 한국어 음절 구조를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연음 현상

한국어의 음절들이 결합하여 단어가 될 때, 앞 음절이 폐음절이고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연음이 일어난다. 아래 <표 9>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연음 현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9> 한국어의 연음 현상

음운 환경	예문
중성+모음으로 시작된 문법형태소	책을 <u>읽은</u> 후에 돌려주세요.
중성+모음으로 시작된 어휘형태소	그 집의 음식이 <u>맛없다</u> .

첫 번째 유형은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선행음절의 종성이 제 음가대로 후행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은 후에 돌려주세요.’에서 ‘책을, 읽은’은 [채글, 일근]과 같이 발음된다. 두 번째 유형은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휘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선행음절의 종성이 음절말 자음중화를 거친 후, 후행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집의 음식이 맛없다.’에서 ‘맛없다’는 [마덱따]와 같이 발음된다.

중국어에도 연음 현상이 있지만 자음과 모음 사이에 적용되는 연음 현상은 어기조사의 ‘啊/a/’뿐이다. 어기조사 ‘啊/a/’는 순수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기 때문에 앞 음절에 따라 연음이 일어난다. ‘啊/a/’의 특수한 연음은 <표 10>과 같다. 연음 후의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대응하기도 한다.

<표 10> 중국어 ‘啊/a/’의 연음 유형

앞 음절 운미	‘啊/a/’의 연음	대용한자	예문
-a, -e, -i, o	a→ia	呀	他呀
-ou, -u	a→wa	哇	哭哇
-n	a→na	哪	看哪

<표 10>에서 보듯이 어기조사 ‘啊/a/’는 모음 운미와 자음 운미에 후행할 때 연음이 일어난다. 앞 음절 운미가 /a, e, i, o/인 경우에는 [ia]로 발음되고, 앞 음절 운미가 /ou, u/인 경우에는 [wa]로 발음된다. 또한 앞 음절 운미가 음절말 자음 /n/인 경우에는 [na]로 발음된다. 앞 음절 운미가 모음인 경우에는 중국어 운모의 운두인 /i, u/를 첨가해서 발음되지만 앞 음절 운미가 자음 /n/인 경우에는 /n/음을 하나 더 첨가해서 발음된다.

중국어의 연음 현상에 적용되는 어기조사는 ‘啊/a/’뿐인 데 비하여 한국어

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또한 '啊/a/'가 어기 조사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연음 현상은 문미에서만 실현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연음 현상은 위치에 상관없이 적용 범위가 넓다. 또한 중국어는 음절이 독립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의 역할을 하는 단음절적 특징이 뚜렷하고, 하나의 형태소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음절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짙다.¹⁹⁾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연음하지 않고 절음하여 발음하는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대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가 한·중 자음의 조음 위치, 조음방법과 장애음의 다른 분류 때문에 연음 발음할 때 선행 종성을 다른 자음 발음으로 대치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언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 때문에 연음 발음할 때 선행 종성을 탈락시켜 발음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 연음 현상의 간섭으로 인해 선행 종성을 하나 더 첨가하여 발음하거나 연음하지 않고 절음해서 발음하는 것도 예상된다.

19) 강식진(2010:11)에서 인용.

Ⅲ. 실험 방법

본 장에서는 효과적인 연음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의 방법을 기술한다. 실험은 산출 실험과 지각 실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산출 실험의 실험 절차를 소개하고, 각 단계 피험자 정보와 실험문장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지각 시험의 실험 절차를 소개하고 나서 피험자 정보와 판별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산출 실험

본 실험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연음 발음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다. 본고는 산출 실험을 위하여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학과 학생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숙달도에 따른 연음 발음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험자들이 학습한 교재를 분석하여 각 단계의 녹음 문장을 선정하였다. 녹음은 SoundForge9.0을 사용하여 조용한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이 인쇄된 대본을 보고, 보통 발화 속도로 1회 읽게 하였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청취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시 녹음하였다. 이 절에서 먼저 피험자 정보를 제시하고, 실험 문장에 대해 기술한다.

1) 피험자

피험자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L대학교 한국어학과의 1학년

학생 15명과 4학년 학생 15명, 총 30명이다. 피험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 통일 수능시험을 통과해 L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1학년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지 못했지만 한국어 학습시간이 6개월이므로 초급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 4학년 학생은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았고 9명은 6급을 취득했고 6명은 5급을 취득하였으므로 고급의 수준이다.²⁰⁾ 초급과 고급 학습자들은 같은 교육기관에서 같은 교재로 수업을 받은 학습자들로 선정하였다. 초급 피험자들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초급 피험자 기본 정보

	이름	나이	성별	출신지	한국어 학습시간
초급1	JL	19	여	흑룡강	6개월
초급2	ZS	19	여	흑룡강	6개월
초급3	LDY	20	여	요령	6개월
초급4	LX	19	여	길림	6개월
초급5	SCC	19	남	흑룡강	6개월
초급6	XL	19	여	흑룡강	6개월
초급7	AN	19	여	산둥	6개월
초급8	ZML	19	여	하북	6개월
초급9	YY	20	남	흑룡강	6개월
초급10	WTT	20	여	길림	6개월
초급11	HD	19	여	흑룡강	6개월
초급12	HX	20	여	흑룡강	6개월
초급13	LL	19	여	요령	6개월
초급14	LLN	19	여	흑룡강	6개월
초급15	CXZ	19	여	흑룡강	6개월

20)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1급부터 6급까지 있다. 1, 2급은 초급, 3, 4급은 중급, 5, 6급은 고급이다(2011~2014.4.20. 기준). 본고는 진술의 편의성을 위해 뒤 내용에서 1학년은 초급, 4학년은 고급으로 칭한다.

초급 피험자 15명 중 남자는 2명, 여자는 13명이다. 피험자들의 출신지는 중국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산둥성, 하북성 등이고, 피험자들이 모두 중국어 표준어를 사용한다. 초급 피험자 연령은 19-20세이고, 한국어 학습 시간은 6개월이다. 고급 피험자들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2> 고급 피험자 기본 정보

	이름	나이	성별	출신지	한국어능력시험등급
고급1	FL	22	여	길림	6급
고급2	ZJ	22	여	흑룡강	6급
고급3	YDK	22	여	산둥	6급
고급4	CRY	23	여	흑룡강	5급
고급5	MY	22	여	흑룡강	5급
고급6	CWY	22	여	흑룡강	6급
고급7	WSR	22	여	흑룡강	5급
고급8	WB	22	여	흑룡강	6급
고급9	CX	23	여	흑룡강	5급
고급10	HY	22	여	산둥	5급
고급11	ZX	23	여	흑룡강	6급
고급12	YY	22	여	길림	6급
고급13	LXX	22	여	흑룡강	6급
고급14	WMN	22	여	흑룡강	6급
고급15	MHL	22	남	산서	5급

고급 피험자 15명 중 남자는 1명, 여자는 14명이다. 피험자들의 출신지는 중국 흑룡강성, 길림성, 산둥성, 산서성 등이고, 피험자들이 모두 중국어 표

준어를 사용한다. 고급 피험자 연령은 22-23세이다.

2) 녹음 문장

녹음 문장은 매 등급에서 직전 학기에 배운 교재²¹⁾에서 선택하여 오류조사를 진행하였다. 녹음 문장을 선정할 때 교재에서 사용된 전체 문장을 대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종성과 모음 시작된 문법행태소의 연음 현상을 추출하고, 단순한 실수와 오류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선행 종성에 따라 실험 문장을 3개씩 선정하였다. 읽기 자료는 교재 내용을 조작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립단어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자연스러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각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문장을 선택했고, 인위적으로 실험 자료를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런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 단계의 녹음 문장은 다음과 같다.

<표 13 > 초급 단계 녹음 문장

선행종성 자음	읽기 문장
/ㄱ/	1. <u>한식</u> 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2. 사람이 많으니까 <u>문쪽</u> 으로 가십시오. 3. <u>책</u> 을 읽은 후에 말씀해 주세요.
/ㄴ/	4. <u>사진</u> 을 찾아요. 5. 그 <u>분</u> 은 내일 <u>한가</u> 하니까 <u>집</u> 에 있을 거예요. 6. 떠나기 <u>전</u> 에 전화하세요.
/ㄷ/	7. 김 선생님이 <u>전화</u> 를 받을까요? 8. <u>문</u> 을 <u>닫</u> 으시다. 9. 비자를 <u>받</u> 으러 갑니다.

21) 초급 단계의 녹음 문장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편집하고 세계도서출판사에서 출판한 교재 『한국어 교정 1』(『韓國語教程 1』)에 있는 발음 부분 외 1~10과의 회화, 문법 설명 예문과 유형 연습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고급 단계의 녹음 문장은 『한국어 교정 5』(『韓國語教程 5』)에 있는 41~50과의 회화, 문법 설명 예문과 유형 연습에서 선정하였다.

/ㄷ/	10. 내일은 비가 올 것 같 <u>아</u> 요. 11. 삼월이니까 꽃이 필 거 <u>예</u> 요. 12. 우리 내려가서 나무 그 <u>늘</u> 에 앉 <u>습</u> 시다.
/ㅁ/	13. 김 선생 <u>님</u> 이 전화를 받을 <u>까</u> 요? 14. 그 사 <u>람</u> 은 말을 안 합 <u>니</u> 다. 15. 처음 <u>에</u> 는 우리 팀이 질 것 같 <u>았</u> 습 <u>니</u> 다.
/ㅂ/	16. 옷을 입 <u>어</u> 요. 17. 그 분은 내일 한가하니까 집 <u>에</u> 있을 거 <u>예</u> 요. 18. 1 <u>급</u> 이어서 잘 하지 못 <u>합</u> 니다.
/ㅅ/	19. 거기 <u>에</u> 는 아이들 옷이 많 <u>았</u> 습 <u>니</u> 다. 20. 한식은 무 <u>엇</u> 으로 먹 <u>습</u> 니까? 21. 옷을 입 <u>어</u> 요.
/ㅈ/	22. 늦게 일 <u>어</u> 나서 학교에 늦 <u>었</u> 습 <u>니</u> 다. 23. 사 <u>건</u> 을 찾 <u>아</u> 요. 24. 소포를 찾 <u>으</u> 러 갑 <u>니</u> 다.
/ㅊ/	25. 예쁜 꽃을 가 <u>지</u> 고 갔 <u>습</u> 니다. 26. 삼월이니까 꽃이 필 거 <u>예</u> 요. 27. 꽃이 피 <u>었</u> 습 <u>니</u> 다.
/ㅌ/	28. 내일은 비가 올 것 같 <u>아</u> 요. 29.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 <u>아</u> 요. 30. 처음 <u>에</u> 는 우리 팀이 질 것 같 <u>았</u> 습 <u>니</u> 다.
/ㅍ/	31. 앞 <u>으</u> 로 만나지 않 <u>겠</u> 습 <u>니</u> 다. 32. 이 건물 앞 <u>에</u> 서 사진을 찍 <u>기</u> 로 했 <u>습</u> 니다. 33. 서울에서 제일 높 <u>은</u> 건물입 <u>니</u> 다.
/ㅑ/	34. 밖 <u>에</u> 누가 왔 <u>어</u> 요? 35. 지금 밖 <u>에</u> 비가 오는 군 <u>요</u> . 36. 밖 <u>으</u> 로 나가 <u>세</u> 요.
/ㅕ/	37. 그 분은 내일 한가하니까 집 <u>에</u> 있을 거 <u>예</u> 요. 38. 밖 <u>에</u> 누가 왔 <u>어</u> 요? 39.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 <u>아</u> 요.
/ㅗ/	40. 의자에 앉 <u>아</u> 서 기다립 <u>니</u> 다. 41. 여기 앉 <u>아</u> 서 기다립 <u>시</u> 다. 42. 우리 내려가서 나무 그 <u>늘</u> 에 앉 <u>습</u> 시다.
/ㅛ/	43. 거기 <u>에</u> 는 아이들 옷이 많 <u>았</u> 습 <u>니</u> 다. 44. 사 <u>람</u> 이 많 <u>으</u> 니까 문 <u>쪽</u> 으로 가 <u>십</u> 시오. 45. 모 <u>르</u> 는 것이 많 <u>은</u> 데 어 <u>떻</u> 게 할 <u>까</u> 요?

/ㄹ/	46. 읽으십시오. 47. 200페이지까지 읽었습니까? 48. 책을 읽은 후에 말씀해 주세요.
/ㄹ/	49.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는 러시아예요. 50. 방이 참 넓어요. 51. 넓은 바다가 참 좋았어요.
/ㅂ/	52. 물건 값이 비쌌습니까? 53. 돈이 없으니까 안 샀습니다. 54. 값은 비싸지만 질은 좋아요.

<표 13>에서 보듯이 초급 단계 읽기 자료에서 고찰한 선행 종성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이고 모두 18개이다. 각 선행 종성 자음과 후행 모음의 연음 사례수는 3개씩이다. 따라서 초급 단계 종성 자음 뒤 모음이 오는 환경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810(3×15명×18)개이다. 다음으로 고급 단계의 녹음 문장을 살펴보겠다.

<표 14 > 고급 단계 녹음 문장

선행종성 자음	읽기 문장
/ㄱ/	1. 하여간 붙어야 내가 한턱을 크게 얻어먹을 텐데. 2. 영화에 주로 악역으로 등장하는 배우도 있다. 3. 또 사랑의 몸짓을 하면서 생명력에 대한 다짐을 하고, 생리적인 체중도 뚱었다고 할 수 있다.
/ㄴ/	4. 저 자신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두 세대간의 격차를 없애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 아버지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기분이 언짢으신가 봐.
/ㄷ/	7. 도련에 무엇이 묻어서 못이 지지분하구나. 8. 양심적으로 더 받을 수는 없지만 되돌려 주기 싫을 때도 있지. 9. 위수술을 받으셨으니 음식물은 안 될 테고...꽃을 사 갑시다.
/ㄹ/	10. 섹스롭게 꾸민 답이랑. 줄줄이 실에 맨 대추 말이지요? 11. 덮어놓고 안 쓰는 것만이 제일은 아니니까. 12.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괜히 눈물이 쏟아지고 옛날에 하찮은 일로

	다툼 게 다 후회스럽더군요.
/ㄱ/	13. 제 아버 <u>답</u> 아서 키도 크고, 아주 대장부 <u>답</u> 이야. 14. 두 세대간의 격차를 없애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5. 선배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읽으니까 모호했던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
/ㄴ/	16.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혼인 날짜를 신랑집에 알리어 서로 합의하면 약혼이 되는 것이다, 17. 숨기고 싶어하는 한국인의 수줍은 성품을 잘 보여 주는 옷이다. 18. 두 세대간의 격차를 없애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ㄷ/	19. 또 사랑의 몸짓을 하면서 생명력에 대한 다짐을 하고, 생리적인 체중도 뚝었다고 할 수 있다. 20. 숨기고 싶어하는 한국인의 수줍은 성품을 잘 보여 주는 옷이다. 21. 귀가 길에 <u>킴킴한</u> 곳에서 누군가 쫓아와서 기절할 뻔했다면서요?
/ㄹ/	22. <u>늦었</u> 는데 속히 출발하지 않고 뭘 꾸물대는지 알 수가 없군요. 23. 곧 적금을 <u>찾</u> 을 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무이자로 빌려 드릴게요. 24. 너무 <u>늦었</u> 으니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다들 집에 갑시다.
/ㅁ/	25. 봄이라서 그런가, <u>꽃</u> 이 있어서 그런가? 26. 조심한다는 것이 이렇게 또 실수를 해서 정말 뭘 <u>낮</u> 이 없습니다. 27. 위수술을 받으셨으니 음식물은 안 될 테고... <u>꽃</u> 을 사 갑시다.
/ㅂ/	28. 대개는 말끝을 분명히 하지 않고 흐려 버립니다. 29. 하여간 <u>붙</u> 어야 내가 한턱을 크게 얻어먹을 텐데. 30.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없이 집에서만 뒹구는 것 같아서 소일거리를 찾던 참이었어요.
/ㅅ/	31. <u>덮</u> 어놓고 안 쓰는 것만이 제일은 아니니까. 32. 숨기고 싶어하는 한국인의 수줍은 성품을 잘 보여 주는 옷이다. 33. 문제는 인간이 <u>앞</u> 으로도 현재의 생활 방식을 지속시키느냐 획기적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ㅇ/	34. 그밖에도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네. 35. 함진아버들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비싼 값이 아니면 안 팔겠다고 장난 <u>섞</u> 인 투정을 한다. 36. 어딜 가나 <u>겪</u> 어야 하는 일이니 무슨 해결책이 나와야겠지요.
/ㅈ/	37.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없이 집에서만 뒹구는 것 같아서 소일거리를 찾던 참이었어요. 38. 너무 <u>늦었</u> 으니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다들 집에 갑시다. 39. 위수술을 받으 <u>셨</u> 으니 음식물은 안 될 테고... <u>꽃</u> 을 사 갑시다.
/ㅊ/	40. 탈춤은 <u>앞</u> 아서 구경하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 둥글게 울타리를 만들

	<p>어 그 판이 저절로 무대가 되고 또 극장이 되어 한테 어울린다.</p> <p>41. 내 뒤에 <u>앉아</u> 있는 애가 오늘도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내 말 흉내를 내지 않겠니?</p> <p>42.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u>앉아</u> 계산하는 일만 해서 지루하고 짜증도 나련만.</p>
/ㄴㅎ/	<p>43. 아버지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기분이 언짢으신가 봐.</p> <p>44.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괜히 눈물이 쏟아지고 옛날에 하찮은 일로 다툰 게 다 후회스럽더군요.</p> <p>45.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없이 집에서만 뒹구는 것 같아서 소일거리를 찾던 참이었어요.</p>
/ㄹㅇ/	<p>46. 색스럽게 꾸민 닭이랑. 줄줄이 실에 맨 대추 말이지요?</p> <p>47. 선배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읽으니까 모호했던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p> <p>48.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표정이 밝으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p>
/ㄹㅁ/	<p>49. 바지통과 치마통이 넓어서 의자가 아닌 방바닥이나 마루 바닥에 앉기에 너무나도 편하다.</p> <p>50. 그 집은 우리하고 똑같은 25평인데 왜 그렇게 넓어 보이지?</p> <p>51. 그분보다 발이 넓은 분은 제 주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p>
/ㅁ/	<p>52. 함진아비들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비싼 값이 아니면 안 팔겠다고 장난 섞인 투정을 한다.</p> <p>53.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읽어보았는데 그 소설이 어떻다고 해요?</p> <p>54. 두 세대간의 격차를 없애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p>

<표 14>에서 보듯이 고급 단계 읽기 자료에서 고찰한 선행 종성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ㅊ, ㅋ, ㅌ, ㅍ, ㅊ, ㄴ, ㄹ, ㅁ/으로, 초급과 같이 모두 18개이다. 각 선행 종성 자음과 후행 모음의 연음 사례수는 3개씩이다. 따라서 고급 단계 종성 자음 뒤 모음이 오는 환경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810(3×15명×18)개이다. <표 13, 14>의 읽기 문장은 피험자들에게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전체 실험 사례수는 초급 810개, 고급 810개 총 1620개이다.

2. 지각 실험

본 실험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산출한 발화에 대한 지각 실험이다. 이 실험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연음 발음에 대한 오류 양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각 실험 평가지를 피험자에게 주고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산출 실험의 녹음 자료를 피험자에게 들려주었다. 피험자는 그것을 듣고 평가지에 소리대로 적었다. 다음으로 먼저 지각 실험 피험자 정보를 제시하고, 판별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1) 피험자

녹음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한국어의 표준 발음을 구사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론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한국어 화자에게 들려주어 지각 실험을 실시하였다. 지각 실험 피험자의 기본 정보는 <표 15>와 같다.

<표 15> 지각 실험자 정보

	이름	성별	나이	한국어 교육 경험	교육정도	출신지
평가1	LSJ	여	39	7년	박사	서울
평가2	KHM	여	35	2년	박사	서울
평가3	HBH	여	29	6개월	석사	서울
평가4	KHS	여	30	2년	석사	서울
평가5	LSH	여	36	4년	박사	서울

IV.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 양상

본 장에서는 II장의 이론부분에 대한 대조를 토대로 초급 피험자와 고급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어 연음 발음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오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1. 전체적인 경향

초급 단계의 연음 발음 전체 오류수는 343개, 오류율은 42.3%로 나타났다. 고급 단계의 연음 발음 전체 오류수는 43개, 오류율은 5.5%로 나타났다. 초급 단계와 고급 단계의 연음 발음 오류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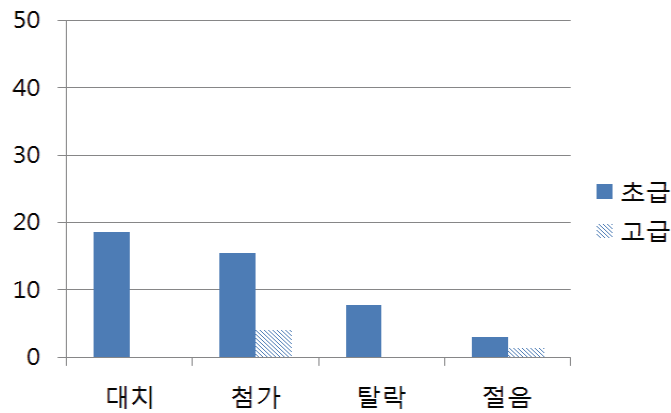
<표 16> 초급·고급 단계 연음 발음 오류수 비교

오류유형	초급(빈도)	고급(빈도)
대치	145	-
첨가	113	32
탈락	61	-
절음	24	11
합계	343	43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발음 양상에서는 대치의 발음 오류, 탈락의 발음 오류, 첨가의 발음 오류와 절음의 발음 오류²²⁾ 총 4가지 오류 유형이 나타

22) 양순임(2007)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음규칙 적용 오류 유형을 대치, 탈락, 첨가, 절음으로 나눈 바가 있다. 본고는 각 오류 유형의 구체적인 해석은 본고의 pp.5 각주 6)에서

났다. 초급 단계의 343개 오류 중에는 대치의 발음 오류수가 145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첨가의 발음 오류수는 113개로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탈락과 절음의 발음 오류수는 각각 61개, 24개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가 한국어의 연음을 발음할 때 선행 중성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급 단계의 오류 유형 4가지에 비해 고급 단계의 오류 유형은 첨가와 절음의 발음 오류만 나타났다. 첨가의 발음 오류수는 32개이고, 절음의 발음 오류가 11개이었다. 이는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능숙한 고급 학습자들은 많은 발화 연습을 통하여 중성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고, 탈락의 연음 발음 오류를 극복하였지만 첨가와 절음에 대한 연음 발음을 실현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급 단계와 고급 단계의 연음 발음 오류 유형별 오류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4> 초급·고급 단계 연음 발음 오류율

위의 그래프를 보면 초급 단계 대치 발음 오류율은 1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였다. 또한 첨가의 발음 오류율은 15.5%를 차지하고, 탈락의 발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양순임(2007)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겠다.

음 오류율은 7.8%, 절음의 발음 오류율은 3%로 나타났다. 고급 단계 첨가의 발음 오류율은 4.1%를 차지하고, 절음의 발음 오류율은 1.4%를 점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초급 단계와 고급 단계의 연음 발음을 살펴볼 것이다.

2. 초급 단계

1절의 전체적인 경향을 통해 초급 학습자들의 오류에서는 대치, 첨가, 탈락, 절음의 발음 오류가 모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초급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대치

앞서 설명했듯이 연음 발음의 대치 오류는 초급 단계에서만 나타났다. 초급 단계의 연음 발음 대치 오류는 5가지 오류 유형별로 나누어진다. 이 5가지 오류 유형과 오류 빈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초급 단계 대치 오류 유형별 및 오류 빈도

오류유형	오류 빈도	백분율(%)
/ㅅ, ㅆ, ㅈ, ㅊ, ㅌ/의 혼동	71	49
/ㄱ, ㄴ, ㄷ/ → /ㄱ, ㄴ, ㄷ/, /ㄱ/ → /ㄱ/	45	31
/ㅈ, ㅊ/ → /ㄷ/	17	11.7
/ㄴ, ㅇ/으로 대치	8	5.5
/ㅁ/ → /ㅂ/ + /ㅅ/	4	2.8
합계	145	100

<표 17>에서 보듯이 초급 단계의 연음 발음 대치 오류의 첫 번째 유형은 연음을 발음할 때 파찰음과 마찰음 즉 /ㅅ/, /ㅆ/, /ㅈ/, /ㅊ/, /ㅌ/의 혼동 오류이다. 이는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마찰음과 파찰음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71개이고, 전체 대치 발음 오류의 4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연음을 발음할 때 선행 종성인 파찰음 평음 /ㄱ/, /ㄷ/, /ㅂ/을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진 경음 /ㄲ/, /ㄸ/, /ㅃ/으로 대치한 오류와 선행 종성인 경음 /ㄲ/을 /ㄱ/으로 대치한 오류이다. 이는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평음과 대응하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들이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한 것이다. 이 종류의 대치 오류는 45개가 나타나고, 31%를 점하였다. 세 번째는 선행 종성 /ㅈ/, /ㅊ/을 /ㄷ/으로 대치한 오류이다. 이러한 대치 오류는 17개이고, 11.7%를 차지하였다. 네 번째는 /ㄴ/, /ㅇ/으로 대치한 오류이고, 다섯 번째는 연음 환경의 선행 종성 /ㅃ/을 발음할 때 /ㅆ/을 /ㅅ/으로 대치한 오류이다. /ㄴ, ㅇ/으로 대치한 오류는 8개가 나타나고, 5.5%를 차지하며, 연음 환경의 선행 종성 /ㅃ/을 발음할 때 /ㅂ+/ㅅ/으로 대치한 오류는 4개이고, 2.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치 오류 유형별에 따라 오류 양상을 살펴면서 오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표 18> 초급 단계 대치 오류 양상 (1)

종성	예시	발음오류양상예시	오류 빈도	백분율 (%)
/ㅅ/→/ㅆ/	옷이/옷을	[오시]→[오씨] [오슬]→[오쥬]	21	14.5
/ㅆ/→/ㅅ/	있어	[이씨]→[이서]	12	8.3
/ㅅ/→/ㅊ/	옷이 무엇으로	[오시]→[오치] [무어스로]→[무어츠로]	10	6.9

/ㅈ/→/ㅉ/	찾으러	[차즈러]→[차쯔러]	6	4.1
/ㅈ/→/ㅅ/	찾아요	[차자요]→[차사요]	6	4.1
/ㅊ/→/ㅅ/	꽃이	[꼬치]→[꼬시]	6	4.1
/ㅊ/→/ㅈ/	꽃이	[꼬치]→[꼬지]	4	2.8
/ㅈ/→/ㅊ/	찾아요	[차자요]→[차차요]	2	1.4
/ㅆ/→/ㅊ/	있을	[이씨]→[이출]	2	1.4
/ㅊ/→/ㅉ/	꽃이	[꼬치]→[꼬찌]	2	1.4
합계			71	49

<표 18>은 초급 단계의 연음 대치 오류에서 마찰음과 파찰음 즉 /ㅅ/, /ㅆ/, /ㅈ/, /ㅉ/ /ㅊ/의 발음 혼동 오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ㅅ/과 /ㅆ/의 발음을 구별하기를 가장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 /ㅆ/을 대응하는 /s/가 있지만 /ㅅ/과 대응하는 자음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학습자들은 평음 /ㅅ/을 배울 때면 그 시간에 순조롭게 통과되는 학생이 거의 없고, 빠르면 한 달, 심지어 반년, 혹은 1년이 지나서야 /ㅅ/발음을 제대로 발음하게 된다(손복희 2012:35). 이러한 자음 발음 오류가 음절 초성에서만 나타나는 오류가 아니고 연음 현상을 적용할 때도 나타났다. /ㅆ/을 /ㅅ/으로 대치하는 오류는 부분 학습자가 발음 교정을 받아 /ㅅ/발음을 할 수 있을 때 그 발음을 과도 적용하여 /ㅆ/을 /ㅅ/으로 발음한 오류로 본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의 조음위치 영향으로 인하여 /ㅅ/, /ㅈ/, /ㅊ/을 혼동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ㅅ/, /ㅈ/, /ㅊ/을 발음할 때 보편적으로 중국어의 /s/, /z/, /c/로 대응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ㅅ/은 치조음이고, /ㅈ/, /ㅊ/은 경구개음이다. 중국어의 /s/, /z/, /c/는 모두 치조음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가 초급 학습자들이 조음위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로 판단된다. 양순임(2007:138)에서도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ㅅ/을 중국어 /c/ 또는 /s/로 인식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초급 학습자가 모국어의 간섭 때문에 /ㅈ/과 /ㅉ/의 발음을 혼동한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마찰음과 파찰음을 발음할 때 서로 대치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표 19> 초급 단계 대치 오류 양상 (2)

중성	예시	발음오류양상예시	오류 빈도	백분율 (%)
/ㄱ/→/ㄱ/	식은/책을	[시근]→[시꾼] [치글]→[치꿀]	15	10.3
/ㅂ/→/ㅃ/	집에	[지베]→[지뻬]	12	8.3
/ㄷ/→/ㄸ/	답습시다	[다듭씨다]→[다뚝씨다]	10	6.9
/ㄴ/→/ㄴ/	밖에	[바께]→[바게]	8	5.5
합계			45	31

<표 19>에서와 같이 평과열음 중성 /ㄱ/, /ㄷ/, /ㅂ/을 경과열음 /ㄱ/, /ㄷ/, /ㅃ/으로 대치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II장에서 대조했듯이 중국어에는 한국어 평과열음 /ㄱ/, /ㄷ/, /ㅂ/과 비슷한 발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초급 학습자가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오류가 생기는 원인은 한국어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으로 3계열이 존재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무기음과 유기음 2계열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의 경음, 격음과 비슷한 발음만 있다. 한국어의 평음은 경음과 격음의 중간 정도의 기류를 동반하여 발음된다. 초급 학습자들이 평음을 발음할 때 기의 세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므로 연음을 발음할 때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모국어 간섭으로 인하여 생긴 오류이다. 또한 /ㄱ/을 /ㄱ/으로 대치하는 오류도 앞서 분석했듯이 학습자가 발음 교정을 받아 /ㄱ/발음을 할 수 있을 때 그 발음을 과도 적용해서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표 20> 초급 단계 대치 오류 양상 (3)

중성	예시	발음오류양상예시	오류 빈도	백분율 (%)
/ㅈ/→/ㄷ/	늦었습니다	[느질썸니다]→[느딤썸니다]	10	6.9
/ㅊ/→/ㄷ/	꽃이	[꼬치]→[꼬디]	7	4.8
/ㄹ/→/ㄴ/	삼월이	[사뽀리]→[사뽀니]	4	2.8
/ㄱ/→/ㅇ/	밖에	[바께]→[방에]	2	1.4
/ㄱ/→/ㄴ/	처음에	[처으메]→[처으네]	2	1.4
/ㅃ/→[ㅂ]+[ㅅ]	값은/값을	[갑썸]→[갑썸] [갑썸]→[갑썸]	4	2.8
합계			31	21.4

<표 20>의 오류 양상을 보면 초급 학습자의 연습 발음 대치 오류에서는 /ㅈ, ㅊ/을 /ㄷ/으로 대치하는 오류, 연습할 때 선행 중성을 /ㄴ, ㅇ/로 대치하는 오류와 중성 /ㅃ/과 후행 모음을 연습할 때 /ㅅ/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있었다. 중성 /ㅈ/, /ㅊ/을 /ㄷ/으로 대치하는 경우는 선행 중성을 음절말 자음중화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 이를 연습을 하여 발음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먼저 배운 음절말 자음중화규칙의 영향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본고의 피험자들이 배운 교재의 한국어 발음 교육은 자모음→홀받침→겹받침+음운현상의 순으로 다루고 있다.²³⁾ 초급 학습자가 연습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중성 /ㄱ/을 /ㅇ/으로, /ㄱ/, /ㄹ/을 /ㄴ/으로 대치하는 오류도 나타났다. II장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대조했듯이 한국어의 음절은 삼분적인 차원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는데 중국어의 음절은 이분적인 차원 성모, 운모로 구성된다. 중국어 음절 말에 허용되는 자음은 /n/, /ng/ 두 개

23)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편찬한 『基础韩国语 1』 같은 경우는 한국어 발음 교육은 자모음→홀받침→겹받침→음운 현상의 순으로 다루고 있다. 이 두 가지 발음 교육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홀받침교육은 음운 현상 교육보다 일찍 실시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 있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가 연음 발음할 때 선행 종성을 자신이 발음하기 편한 /ㄴ/, /ㅇ/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ㄱ/과 /ㅇ/은 모두 연구개음이고, /ㄹ/과 /ㄴ/은 모두 치조음인 점에 연음 발음 해당 종성은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진 비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종성 /ㅃ/과 후행 모음을 발음할 때 /ㅅ/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ㅃ/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 연음이 되는 /ㅅ/이 /ㅆ/으로 발음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김진석(2013:49)에서도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들이 연음할 때 겹받침의 올바른 발음에 대해서 몰라서 일으키는 오류로 보았다. 또한 조사 단어 '값은', '값을'이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연음규칙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같은 겹받침인 '없어'의 발음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이를 증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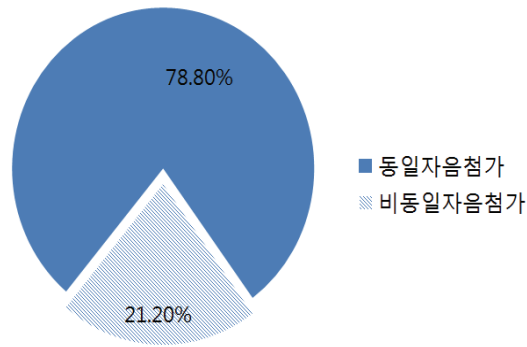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중국인 초급 학습자가 한국어의 평과열음을 발음할 때의 기식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연음을 발음할 때 평과열음을 같은 조음위치를 가진 경음으로 대체한다. 또한 모국어 영향 때문에 파찰음과 마찰음을 혼동하고, /ㄴ/, /ㅇ/으로 같은 조음위치를 가진 장애음을 대체한다. 음절말 자음중화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연음한 것과 종성 /ㅃ/이 후행 모음과 연음될 때 /ㅃ+/ㅅ/로 발음한 것은 한국어 연음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첨가

초급 단계의 첨가 발음 오류는 첨가 종성과 연음 해당 종성이 같은지에 따라 동일 자음 첨가와 비동일 자음 첨가로 나눌 수 있다. 동일 자음 첨가는 연음 해당 종성을 하나 더 첨가하여 중복자음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연

24) 이는 초급 학습자가 경음화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종성 /ㅃ/ 뒤에 모음이 오는 연음 환경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므로 연음 발음 오류로 본다.

음 규칙이 적용될 환경에서 첨가 종성과 연음 해당 종성이 다른 경우는 비동일 자음 첨가이다. 초급 단계의 첨가 오류 유형별 비율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초급 단계 첨가 유형별 비율

<그림 5>은 초급 학습자의 첨가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초급 단계 첨가 오류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비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21.2%를 점하였다. 다음으로 초급 학습자의 첨가 오류 양상을 살피고,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21> 초급 단계 첨가 오류 양상

첨가유형	해당 종성	예시	발음오류양상예시	오류 빈도	백분율 (%)
동일 자음 첨가	/ㄴ/	많은 많으	[마는]→[만는] [마느]→[만느]	33	29.2
	/ㄷ/	사전을 그분은	[사저늘]→[사진늘] [그부는]→[그분는]	28	24.8
	/ㄹ/	그들에 일이	[그느레]→[그늘레] [이리]→[일리]	23	20.4
	/ㅁ/	사람은	[사라믄]→[사람믄]	5	4.4

비 동일 자음 첨가	/ㄴ/첨가	/ㄷ/	받을	[바들]→[반들]	10	8.8
		/ㄹ/	삼월이	[사뽀리]→[사뽀리]		
	/ㄱ/첨가	/ㄱ/	밖에	[바께]→[박께]	7	6.2
	/ㅇ/첨가	/ㅈ/	꽃을	[꼬츄]→[꽁츄]	6	5.4
		/ㄱ/	밖으로	[바끄로]→[방끄로]		
/ㄹ/첨가	/ㅍ/	있을	[이썸]→[일썸]	1	1	
합계					113	100

<표 21>에서 초급 학습자의 첨가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모두 연음 해당 종성이 공명음인 경우에 나타나는 반면, 비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모두 연음 해당 종성이 장애음인 경우에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급 단계의 첨가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오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종성 /ㄴ/, /ㄹ/, /ㅇ/과 후행 모음 연음을 받음할 때 나타났다. 종성 /ㄴ/과 /ㄹ/은 후행 모음과 연음될 때 모두 /ㄴ/으로 연음된다. 따라서 종성 /ㄴ/과 /ㄹ/의 동일 자음 첨가 오류 원인은 중국어의 연음 현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Ⅱ장에서는 중국어에서 어기조사 '啊[a]'만 연음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天啊[tian na]'처럼 비음운미 /n/ 뒤에 어기조사 '啊[a]'를 붙일 때는 한국어의 연음규칙을 적용하여 [tia-na]로 발음하지 않고, 먼저 [tian] 발음을 하고 [n] 발음을 하나 더 첨가해 발음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비슷한 음운 환경에도 이러한 모국어 간섭 때문에 /ㄴ/ 자음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성 /ㄹ/의 동일 자음 첨가 오류 원인은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ㄹ/의 두 변이음인 설측음 [l]과 탄설음 [r]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ㄹ/은 음절 말이나 /ㄹ/ 뒤 음절 초성에 나타날 때 설측음 [l]로 발음한다. '날, 물론' 등은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ㄹ/은 /ㄹ/ 뒤를 제외한 음절 초성에 나타날

때 탄설음 [r]로 발음한다. '라면, 노루'와 같은 음절은 이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ㄹ/과 후행 모음이 연음할 때 탄설음 [r]로 발음해야 하는데 초급 학습자들이 음절말 /ㄹ/발음을 할 때 중국어의 권설유음인 'r[ɹ]'로 대응하였다. 중국어의 권설유음 'r[ɹ]'나 한국어의 /ㄹ/[l]은 조음 방법은 같지만 조음 위치가 다르다. 중국어 'r[ɹ]'은 권설음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혀끝이 경구개에 근접하여 발음된다. 후행 모음과 연음할 때 /ㄹ/발음을 첨가하면 발음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생긴 것이다. 이상의 /ㄴ/, /ㄹ/과 /ㄹ/의 동일 자음 첨가 오류에 대해 범류(2010:75)에서도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ㄴ/, /ㄹ/과 후행 모음이 연음될 때 모국어의 간섭과 발음이 편리하기 때문에 후행 음절에 첫소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추가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선행 음절의 끝소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 자음 /ㄹ/과 대응하는 /m/가 있지만 중국어의 /m/가 음절 말에 올 수 없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들이 종성 /ㄹ/을 발음하기가 어렵다. 즉 종성 /ㄹ/을 가진 음절을 발음할 때 종성 /ㄹ/의 발음 정확성을 더 중시하게 되어 먼저 종성이 있는 음절을 발음하고 또 연음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ㄹ/첨가 발음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초급 학습자가 연음의 원리를 익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동일 자음 첨가의 오류 양상은 , /ㄴ/, /ㅇ/, /ㄱ/, /ㄹ/의 첨가로 나타났다. /ㄴ/첨가의 발음 오류가 /ㄷ/, /ㄹ/과 후행 모음을 연음할 때 나타났다. 또한 /ㅇ/첨가의 발음 오류가 /ㄱ/과 후행모음을 연음할 때 나타났다. 앞서 분석했듯이 초급 학습자들은 /ㄷ/, /ㄹ/과 /ㄱ/같은 중국어에 없는 종성을 발음할 때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진 비음으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다. /ㄷ/, /ㄹ/은 치조음이기 때문에 /ㄴ/으로 대치한 것이고, /ㄱ/은 연구개음이기 때문에 /ㅇ/으로 대치한 것이다. 그리고 대치하고 연음하는 인식이 있어서 해당 종성으로 다시 발음한 것이다. 경구개음인 /ㄷ/은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진 비음이 없지만 /o/으로 첨가하는 이유는 중국어에 한국어 '온[on]'과 비슷한 발음이 없지만 한국어 '옹[onŋ]'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운모 'ong[unŋ]'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역시 중국어 음절 구조의 간섭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ŋ/첨가의 발음 오류는 종성 /ŋ/과 후행모음의 연음에서 나타났다. 이는 흘받침의 발음을 배울 때 단독 음절을 발음하는 연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흘받침을 배울 때 종성의 발음을 익히기 위해 '뽕', '밥'과 같은 단독 음절의 발음 연습을 많이 한다. 연음을 발음할 때 종성이 있는 음절을 먼저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 다음 연음 발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r/첨가의 발음 오류가 전체 조사 결과에서 1개만 나왔다. 중국어에는 兒話音 /r/[ɿ]가 연쇄된 음절 뒤 붙이는 경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에는 '花瓶兒[xuap'ɿnr]'이 있지만 '花兒瓶兒[xuarp'ɿnr]'이 없다. 따라서 /r/첨가의 오류는 피험자가 후행 음절의 종성 /r/을 보고 먼저 /r/을 첨가한 후 연음한 오류로 판단된다.

동일 자음 첨가 오류와 비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첨가 종성과 해당 종성의 순서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종성이 있는 음절을 발음한 후 종성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비동일 자음 첨가 오류는 대치의 발음을 먼저 적용한 후 발음하는 오류로 본다. 이는 초급 학습자들이 연음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연음규칙 적용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탈락

초급 단계 연음 발음 오류 중 탈락 발음 오류 양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2> 초급 단계 탈락 오류 양상

해당 종성	예시	발음오류양상예시	오류빈도	백분율 (%)
/ㄱ/	문쪽으로	[문쪼그로]→[문쪼으로]	7	11.5
/口/	처음에	[처으메]→[처으에]	7	11.5
/ㅂ/	입어요	[이벼요]→[이어요]	4	6.6
/ㅃ/	있어	[이썸]→[이어]	4	6.6
/ㄴ/	전에	[저네]→[저에]	4	6.6
/ㄷ/	받으러	[바드러]→[바으러]	3	4.9
/ㅅ/	무엇으로	[무어스로]→[무어으로]	2	3.3
/ㅈ/	꽃을	[꼬츨]→[꼬을]	2	3.3
/ㄹ/	그날에	[그느레]→[그느에]	1	1.6
/ㄹ/	넓은	[널븐]→[너븐]/[너븐]	11	18
/ㅁ/	값을	[갑츨]→[가슬]/[가블]/[가츨]	8	13.1
/ㄹ/	읽은	[일근]→[이근]/[이른]	5	8.1
/ㅅ/	앉아	[안자서]→[안나서]	3	4.9
합계			61	100

<표 22>에서 보다시피 초급 단계의 연음 탈락 발음 오류가 조사한 대부분 선행 종성과 후행 모음의 연음에서 나타났다. 선행 종성이 홀자음인 경우에서 나타난 탈락의 연음 오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생긴 오류라고 판단된다. Ⅱ장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어의 음절은 이분적인 차원으로 성모, 운모로 구성되는데 한국어는 삼분적인 차원으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중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중성 발음을 탈락시키고 발음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낀다. 또한 중국에 있는 초급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발화하는 기회가 거의 없고, 수업시간에만 한국어 읽기와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 중국인 초급 학습자는 머릿속에 굳어진

모국어의 음절구조의 간섭과 발음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 연음 발음할 때 탈락 오류가 많이 생긴다.

선행 종성 /ㄹ/, /ㅁ/, /ㄴ/, /ㅇ/의 탈락 오류 양상에서는 모두 겹받침의 한 자음을 임의로 탈락시키고 연음하는 오류들이다. 이는 초급학습자들이 먼저 자음군 단순화²⁵⁾를 적용하고 연음하는 순서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고의 피험자가 배우는 교재에서는 겹받침 발음과 연음 규칙을 동시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탈락의 발음 오류는 두 가지 종성 발음 규칙에 대한 원리 설명만 있고 원리를 익히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초급 학습자가 모국어 음절구조의 간섭, 겹받침의 연음 원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연습 부족 등의 원인으로 탈락의 발음 오류를 범한다고 본다.

4) 절음

<표 23>은 초급 학습자의 절음 오류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절음 오류는 모두 명사 말음과 후행 모음을 연음할 때 나타났다.

<표 23> 초급 단계 절음 오류 양상

해당 종성	예시	발음오류양상예시	오류 빈도	백분율 (%)
/ㄹ/	그늘에	[그느레]→[그늘에]	8	33.3
/ㄴ/	사전을	[사저늘]→[사전을]	7	29.2
/ㅇ/	처음에	[처으메]→[처음에]	4	16.7
/ㅈ/	꽃을	[꼬출]→[꽃을]	4	16.7
/ㅂ/	급이	[그비]→[급이]	1	4.1
합계			24	100

25)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말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이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음운현상이다(이진호(2005:137)). 자음군 단순화는 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의 음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없다.

초급 단계의 절음 발음 오류는 모국어 간섭으로 생긴 오류로 본다. Ⅱ장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에서 문미에 어기조사 '啊'/a/와 선행 운미의 연음 현상 이외에 연음 현상이 없다. 또한 중국인들은 의미를 지닌 최소한 음절이 하나의 형태소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음절간 경계를 분명히 하여 발음한다. 이러한 모국어 간섭으로 인해 초급 학습자들이 문장을 읽을 때 끊어서 발음하는 절음 오류가 생긴 것이다. 전원해(2005:44)에서는 중국 학습자들은 연음법칙 인지 부족으로 받침을 부자연스럽게 절음하여 읽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들은 형태적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어휘를 발화 차원과 기억차원으로 구분한다. 학습자들은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 '꽃', '그늘'과 같은 기본형을 먼저 외웠다. 그러나 문장 속에 기본형들이 결합할 때 연음을 비롯한 음운 현상 때문에 표기법과 말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서인(2011:32)에서도 기억되는 어휘와 발음되는 어휘의 차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초급 학습자들이 이러한 원인으로 절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초급 단계 연음 발음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초급 단계 연음 발음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연음규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때 절음해서 읽거나 중성을 탈락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한국어 장애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연음할 때 한국어 파열음의 평음과 경음의 대치 현상, 마찰음과 파찰음의 대치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발음하기 어려운 중성과 후행 모음이 연음규칙을 적용할 때 같은 조음위치를 가진 비음 /ㄴ/, /ㅇ/으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종성 /ㄴ/, /ㄹ/, /ㅇ/ 뒤 연음규칙을 적용할 때 심한 동일 자음 첨가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초급 학습자들은 먼저 배운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중화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규칙의 영향으로 연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 그리고 연습이 부족함으로 인해 연음 오류가 생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급 단계의 연음 교육은 한국어 음절구조와 연음의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가 혼동하기 쉬운 자음에 대한 발음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배운 종성에 관한 음운 규칙과 비교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고급 단계

고급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에서는 첨가와 절음의 발음 오류가 나타났다.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 효과에 의해 대치와 탈락의 연음 발음 오류가 없어졌지만 첨가와 절음의 연음 발음 오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절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의 연음 발음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1) 첨가

고급 학습자의 첨가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24> 고급 단계 첨가 오류 양상

첨가유형	해당 중성	예시	발음오류양상예시	오류 빈도	백분율 (%)
동일 자음 첨가	/ㄴ/	만을 간의	[마늘]→[만늘] [가네]→[간네]	15	46.9
	/ㄴᄇ/	얇아	[아나]→[안나]	10	31.2
	/ㄹ/	줄줄이	[줄주리]→[줄줄리]	7	21.9
합계				32	100

고급 학습자의 첨가 오류는 동일 자음 첨가 오류만 나타났다. 중성 /ㄴ/, /ㄴᄇ/, /ㄹ/의 연음을 발음할 때 나타났다.

고급 단계의 첨가 오류 원인은 모국어 간섭 외에 한국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에게 노출되는 /ㄴ/음 첨가 현상이 첨가 오류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 한국어 <표준 발음법> 제29항의 내용 중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한다. [붙임1]에서는 'ㄹ'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물약[물략], 서울역[서울력]으로 발음한다.²⁶⁾ 고급 학습자가 두 가지 음운 현상의 형태론적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하므로 동일 자음 첨가 오류가 생긴다. 또한 한서인(2011:34)에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인이 유성자음 연음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할 때 중성 소리가 선행 음절의 중성과 후행 음절의 초성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들린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첨가 오류는 청취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26) 이진호 (2005:257-258)에서 인용.

2) 절음

<표 25>는 고급 학습자의 절음 오류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5> 고급 단계 절음 오류 양상

해당 종성	예시	발음오류양상예시	오류 빈도	백분율 (%)
/ㄴ/	자신을	[자시늘]→[자신을]	6	54.5
/ㄹ/	응급실에	[응급시레]→[응급실에]	5	45.5
합계			11	100

<표25>에서 보듯이 고급 학습자의 절음 오류는 모두 한자어 발음과 후행 모음이 연음될 때 나타났다. 초급 단계의 절음 발음 오류 양상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없었다. 한자어는 보통 한자와 한글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억할 때나 발음할 때 그 영향을 받아 연음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한서인 2011:32). 특히 오류 양상인 '자신', '응급실'을 대응하는 중국어 '自身'[tsi sɿn] '急診室'[tɕi tɕɿn si] 등 단어들은 중국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절음 오류가 생긴 원인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에 비해 한자어를 기억하기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음할 때 절음 오류를 초래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고급 학습자의 절음 오류 역시 모국어 간섭으로 인하여 생긴 오류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고급 학습자들의 연음 발음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 학습자는 학습효과로 인해 발음의 정확성을 높였고, 연음의 원리를 익혔기 때문에 대치와 탈락 오류가 없다.

둘째, 모국어 연음 현상, 한국어 연음 현상과 /ㄴ/음 첨가 현상의 혼동과

청각적인 영향 때문에 동일 자음 첨가 오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셋째, 한·중 한자어를 대응하여 외우기 때문에 한자어와 후행 모음이 연습될 경우에 절음 오류가 나타난다.

고급 단계의 연음 발음 실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고급 단계의 연음 교육은 연음 현상과 /ㄴ/음 첨가 현상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한자어와 후행 모음을 한 단위로 묶어 발음하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연음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V. 연음 발음의 교육 방안 모색

본 장에서는 IV장의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단계별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설정한 후, 숙달도에 따른 연음 발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연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연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다.

1. 교육 내용 및 방법

본 절은 연음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단계별 연음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입문 단계인 초급에서는 언어의 기본인 발음을 학습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교실 수업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배울 기회가 있지만, 중급·고급으로 올라가면서 발음은 교실 수업이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습 등급이 향상됨에 따라 학습자에게 노출되는 어휘수나 문법 항목이 복잡해지고 발음 요소가 역시 다양한 새로운 모습으로 학습자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발음 지도는 초기 단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연음에 대한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역시 초급 단계에서만 진행하면 안 된다. 2장에서의 한·중 음절 구조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언어의 음절 구조에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IV장

의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발음 실태도 연음의 교육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항목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음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1) 초급 단계 교육 내용 및 방법

Ⅳ장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급 학습자들이 대치, 첨가, 탈락과 절음의 연음 발음 오류를 범하였다. 그 원인은 연음의 원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외에 모국어 자음의 조음위치, 조음방법과 장애음의 분류 차이의 간섭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초급 단계의 연음 발음 교육 내용을 연음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초급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선행 종성 자음의 발음 지도로 설정한다.

연음 발음 교육은 한국어 음운 현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선 연음이 적용되는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초급 학습자들은 미리 배운 음절말 자음중화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규칙을 때문에 연음 발음할 때 탈락, 절음, 대치의 오류가 생긴다. 따라서 이 두 음운규칙과 구분하기 위해 교사가 연음을 발음할 때의 선행 종성 자음을 하나씩 제시해야 한다. 선행 종성 자음을 제시하는 순서는 단독으로 발음할 때와 후행 모음과 연음할 때 종성 발음에 변화가 없는 종성부터 변화가 있는 종성까지 하는 것이 좋다.²⁷⁾ 학습의 편의를 위해 장애음 선행 종성은 조음위치와 조음방법별로 묶어서 제시하고, 공명음 선행 종성은 중국어 음절 끝자리에 올 수 있는 /n/과 비슷한 /ㄴ/부터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고는 4장의 초급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 빈도에 근거하여 오류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의 순으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고는 연음 발음 선행 종성

27) 허용·김선정(2006:205)에서 인용.

자음 제시 순서를 /ㄴ, ㄹ, ㄷ, ㅌ, ㅂ, ㅍ, ㄱ, ㅋ, ㆁ, ㅈ, ㅊ, ㅅ, ㅆ/으로 배열해 보았다. 선행 종성 자음은 겹자음인 경우는 우선 연음의 원리를 변화 없이 적용되는 /ㄴ, ㄹ, ㄷ, ㅌ, ㅂ, ㅍ/을 제시하고 나서 예외인 /ㄴ, ㄹ/과 /ㄱ, ㅋ, ㆁ/을 제시하는 순서로 배열하였다. 이와 같이 연음 원리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를 제시한 후 예외적 예를 제시하면 초급 학습자들이 교수 내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 2절의 대치 발음 오류 양상을 통해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연음 발음할 때 평음을 경음으로 대치하거나 마찰음과 과찰음의 혼동을 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음 발음 연습 단계에서 교사가 조음위치와 조음방법과 같은 이론적인 설명과 직접 느껴질 수 있는 가시적인 설명을 진행하면서 연음 발음을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론적인 설명을 통해 각 선행 종성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상기시키고, 가시적인 설명을 통해 각 선행 종성 기의 세기를 느껴보게 한다. 종성 /ㄹ/이 후행 모음과 연음되는 경우는 /ㄹ/이 설측음 [l]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탄설음 [r]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려준 뒤 연음 발음을 연습시킨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이러한 연습을 통해 더 정확한 연음 발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급 단계에서는 어휘의 기본형과 조사나 어미 형태를 같이 표기하여 한 덩어리로 묶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덩어리를 쓰면서 읽게 하는 방법으로 첨가, 탈락과 절음의 발음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연습 자료는 낱말부터 문장까지 유의미한 자료를 구성하면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이다. 또한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 초급 어휘와 문형으로 된 자료로 연습시키는 것이 좋다.²⁸⁾

연음 교육의 활동 유형은 낱말 읽기, 문장 읽기, 받아쓰기 등이 있다. 낱

28) 양순임(2004:134)에서 인용.

말 읽기는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이 올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연습할 수 있다. 이 때 낱말이 발음 나는 대로 써보게 하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 문장 읽기는 ‘낱말 읽기’에서 연습한 종성의 발음을 문장 차원에서 연습하여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다. 받아쓰기는 ‘낱말 읽기’와 ‘문장 읽기’에서 연습한 내용을 받아쓰기를 통해 더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는 활동이다.²⁹⁾ 이와 같이 서로 연관된 연음 교육 활동을 통해 초급 학습자들로 하여금 연음의 원리에 대하여 충분히 익히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초급 단계에서 이러한 활동 유형을 활용해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고급 단계 교육 내용 및 방법

IV장 3절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연음 오류 양상을 통하여 동일 자음 첨가 오류와 종성이 있는 한자어와 후행 모음이 연음할 때 절음의 오류가 여전히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급 학습자가 /ㄴ/음 첨가 현상과 연음 현상의 적용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청각적인 영향으로 인해 동일 자음 첨가의 오류가 생긴 것이다. 또한 한·중 한자어를 대응하여 외우기 때문에 절음의 오류가 생긴다. 고급 학습자가 많은 발음 연습을 통해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신의 발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급 단계의 연음 교육은 오류 원인의 발견과 연음 발음 연습을 위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설정한다.

고급 학습자들이 동일 자음 첨가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청각적인 영향이다. 이러한 청각적인 인상은 단순한 연음의 원리 설명보다 교사가 직접 연음 발음을 들려주거나 한국인 화자의 발화 음성 자료를 사용

29) 허용·김선정(2006:210)에서 인용.

하여 그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³⁰⁾ 또한 /ㄴ/음 첨가 현상과 연습 현상의 적용 환경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고급 학습자들이 이미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음운현상의 실현 환경을 보여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환경의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자기 피드백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정확한 연습 발음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한자어와 후행 모음이 연습할 때 절음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교사가 종성이 있는 한자어를 찾아서 그 것을 포함하는 문장들로 만든 학습지로 연습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다. 우선 종성이 있는 한자어와 후행 조사나 어미를 한 덩어리로 묶어 반복 발음 연습을 시킨 후 문장 차원에서의 연습을 시키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연습 현상이 있는 문장들을 찾는 과제를 내주고 발음 수업을 할 때 같이 연습해도 좋을 것이다. 고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유형은 초급 단계의 유형 이외에 학습자의 발화 녹음하기와 드라마나 영화 더빙하기 등이 있다.³¹⁾ 학습자들이 교사가 미리 준비해 놓은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에 따라 역할을 정해 연습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조별 과제로 녹음해 오도록 하여 수업 시간에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 소리를 제거한 다음 학습자들이 녹음한 것을 함께 듣는다. 이러한 녹음자료는 학습자의 자기 평가에 활용하거나, 학우들의 평가나 혹은 교사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더빙하는 활동 유형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습을 포함한 음운 현상이나 리듬 등의 연습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급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 절에서 설정한 초급과 고급 단계의 연습 발음 교육 내

30) 이영호(2008:290)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31) 허용·김선정(2006:27)에서 인용.

용 및 방법을 적용하여 숙달도에 따라 연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교육 방안 제시

1) 초급 단계 교육 방안

지금까지 교육 단계에 따른 발음 교육은 일반적으로 제시 단계, 연습 단계와 생성 단계로 이루어진다.³²⁾ 제시 단계에서는 그 시간에 학습할 발음을 들려주고, 발음하는 방법과 관련된 음운 현상들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연습 단계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완전히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발음을 반복하여 연습한다. 생성 단계에서는 제시 단계와 연습 단계에서 배운 발음을 학습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한다. 김형복(2006)에서는 ‘제시 단계→연습 단계→생성 단계’의 기초에 더하여 발음 규칙 교육 모형 즉 ‘도입→발음 규칙 제시 및 이해→발음 규칙 적용 및 연습→발음 규칙 사용→마무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나 시청각적 자료를 통해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내용을 인식시킨다. 제시 및 이해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내용을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적용 및 연습 단계에서는 연습을 통하여 발음 규칙 원리를 익히거나 발음을 교정하는 단계이다. 사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연습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하게 하는 단계이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발음을 평가해주고 교육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발음 규칙

32) 허용·김선정(2006)과 우형식 외(2011)에서 이러한 교육 단계로 발음 교육 수업 예시를 하였다.

교육 모형은 제시 및 이해 단계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발음 규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하게 할 수 있고, 사용 단계를 통해 학습자가 일상발화에 서 연습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발음 규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급 단계의 연습 교육 방안을 이 순서대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음운 규칙을 이해시키는 방법에 따라 설명식 수업과 탐구식 수업으로 나눌 수 있다.³³⁾ 설명식 수업은 교사가 가르칠 음운 규칙을 먼저 제시하고 음운 규칙의 원리를 설명한 뒤 음운 규칙을 적용하는 연습으로 음운 규칙을 익히는 수업이다. 탐구식 수업은 교사가 음성 자료를 들려주거나 문자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배울 음운 내용을 추출하게 하는 수업 유형이다. 본고는 초급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학습 효과를 고려해서 짧은 수업 시간 내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음운 규칙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하게 하는 설명식 수업을 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초급 단계 연습 발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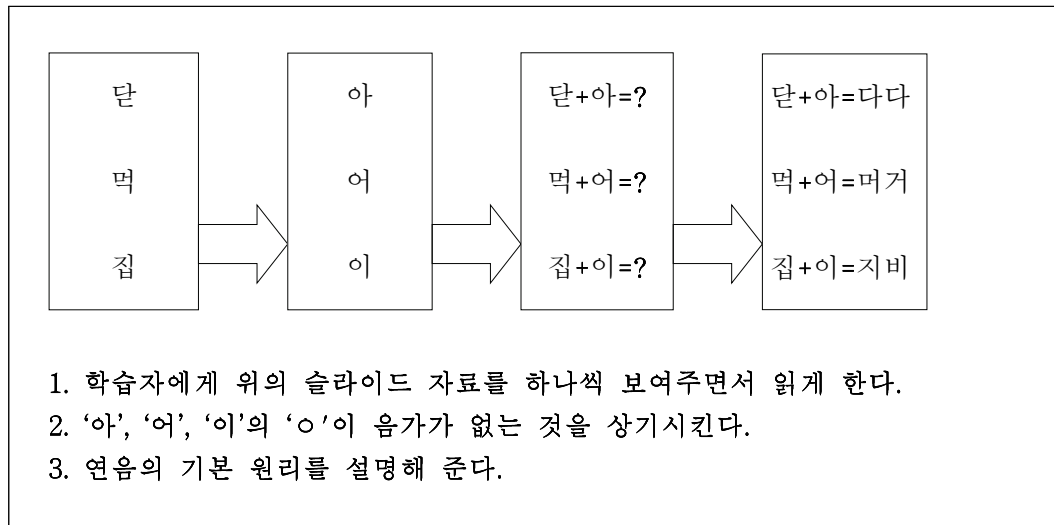
<초급 단계 연습 발음 교육 방안>

단원	연음 지도		차시	1차시
			대상	한국어1 (초급반)
본시 학습 목표	-연음의 표준발음을 알고 정확한 연음 발음을 할 수 있다. -연음 발음 연습을 통하여 과열음 경음과 평음을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다. -마찰음과 파찰음의 조음위치를 알고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		학습 형태	모둠 학습
학습 자료	학생	한국어 교재, 필기도구		
	교사	연음 발음 지도 ppt자료, 학습지, 얇은 휴지		

33) 황미연(2012:42)에서 인용.

가. 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슬라이드 자료를 이용해서 연음이 적용되는 음운 환경을 제시하면서 연음의 기본 원리를 이끌어 낸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내용을 인식시킨다.



나. 제시 및 이해 단계

제시 및 이해 단계에서는 교사가 연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해 설명해준 다음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설정한 제시 순서로 선행 중성 자음을 제시한다. 제시할 때 연음의 예외와 연음 현상의 소규칙을 설명해준다. 또한 제시한 중성들을 연음할 때 탈락시키거나 연음하지 않고 끊어서 발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연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시킨다.

1. 슬라이드 자료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법형태소의 목록을 제시하여 연음은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결합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준다. 아래 예들의 표준 발음을 들려준다.

-이	-을	-은	-에	-에서	-으로
책이	꽃을	사람은	집에	중국에서	손으로
-어/아	-으면	-으니까			
입어	읽으면	높으니까			

2. 학습자들이 음절말 자음중화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규칙을 구별하여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V장 1절에서 제안한 순서로 흘받침과 겹받침의 연음 발음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또한 연음의 예외인 /ㅇ/, /ㅎ/을 같이 설명해준다. (V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대표한다.)

흘받침				
ㄴ+V=ㄴ	ㄹ+V=	ㄷ+V=		
ㄷ+V=	ㅌ+V=	ㄱ+V=	ㅈ+V=	ㅊ+V=
ㅌ+V=	ㅍ+V=	ㅋ+V=	ㅊ+V=	ㅍ+V=
		ㅍ+V=		
겹받침				
ㄴㅈ+V=ㄴ+ㅈ	ㄷㅌ+V=	ㄷㅍ+V=		
ㄷㅌ+V=	ㄷㅍ+V=	ㄷㅍ+V=		
ㄴㅎ+V=ㄴ	ㄷㅎ+V=			
ㄱㅅ+V=ㄱ+ㅅ	ㄷㅅ+V=	ㅅㅅ+V=		
연음의 예외				
ㅇ+V=연음	없음(방+에=방에)			
ㅎ+V=ㅎ	탈락(종+아=조아)			

3. 위의 슬라이드 자료를 제시할 때 교사가 내용을 가리키면서 조금 느린 속도로 읽어준다. 중요한 부분에 휴지를 두어 학습자와 같이 읽는다. 예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사: /ㄴ/이 /ㅇ/과 만날 때 (멈춘다)
 교사, 학습자: /ㄴ/으로 읽어요.
4. 겹받침의 연음 발음할 때 /ㄴㅇ/과 /ㄷㅇ/의 /ㅎ/을 탈락시키고 연음하는 것과 /ㄲ/, /ㄸ/, /ㅃ/의 /ㄴ/는 /ㄴ/으로 발음해야 하는 소규칙들을 알려준다.
5. /ㅇ/과 /ㅎ/이 후행 모음과 결합할 때 연음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준다.
6. 이상 제시한 종성들을 연음할 때 탈락이나 연음하지 않고 절음하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다. 적용 및 연습 단계

적용 및 연습 단계에서는 낱말 읽기를 통해 어휘의 기본형과 조사나 어미 형태를 덩어리로 묶어 반복 연습을 시킨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연음의 원리를 암기하고, 연음 발음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초급 학습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자음의 발음지도를 통해 연음 발음의 정확도를 높인다.

1. 학습자들을 5인 1조로 나누어 아래 활동지를 주고 연습을 시킨다. 연음의 원리를 익히면서 발음 나는 대로 쓰게 한다.
 (학습지를 작성할 때는 단어로 직접 적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이 외운 단어의 기본형을 연음할 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작다→작아→[자가])

종성	단어	+이/을/에	단어	+아/어요	종성	단어	+이/을	+아/어요
ㄱ	책	채기	작다	자가	ㄹ	몹	목씨	
ㄴ	손		신다		ㄴ	앉다		
ㅇ	몸		감다		ㄹ	닭		
ㄷ	물		날다		ㄹ	짧다		
ㄷ			묻다		ㄹ	밟다		
ㅌ	밑		같다		ㄹ	할다		
ㅂ	밥		잡다		ㄹ	을다		
ㅍ	잎		덮다		ㄴ	끓다		
ㄱ	벽		적다		ㄹ	넋		
ㅋ	부엌				ㄹ	움다		
ㄱ	밖		닭다		ㄱ	샷		
ㅈ	빛		맞다		ㄹ	외꺾		
ㅊ	꽃		쫓다		ㅂ	값		
ㅅ	옷		씻다					
ㅆ			있다					

2. 학습자들이 위의 연습을 끝낸 다음 교사가 표 안의 연습 발음을 들려주고 학습자들이 따라 읽게 한다.

3. 다음으로 낱말을 발음 나는 대로 써보고 읽는 연습이다. 읽을 때 1명의 학습자가 읽고, 나머지 학습자들이 들어주고 피드백을 해준다. 조별 연습을 진행한 후 조마다 한 명씩 발표하게 한다.

낱말	발음	낱말	발음	낱말	발음
책을	채글	손에		잠이	
꽃을		동녘이		신발을	
겹을		빛을		별은	
씻어		좁아		있어	
뒤덮어		밖에		깊어	
닫아		쫓아		같아	
앉아서		짧으니까		맑아서	
흙은		값은		을어라	
값을		많아서		몹으로	

4. 이 때 평음과 경음, 마찰음과 파찰음의 혼동이 나타나면 한국어 자음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설명하면서 교정한다.

● 평음과 경음의 발음 지도법:

1) 교사가 칠판에 다음과 같이 판서를 쓴 후 학생과 같이 각 자음의 조음위치

와 조음방법을 환기시킨다.

ㄷ	ㄸ (치조과열음)
ㅂ	ㅃ (양순과열음)
ㄱ	ㄲ (연구개과열음)
ㅈ	ㅉ (경구개과찰음)
ㅅ	ㅆ (치조마찰음)

- 2) 교사는 아래의 평음과 경음의 발음 원리를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발음 연습을 시킨다. 이를 통하여 평음과 경음을 구분하게 하고 연음 발음할 때 정확하게 /ㄷ, ㅂ, ㄱ, ㄲ, ㅈ, ㅉ, ㅅ, ㅆ/으로 하는 것을 지도한다.

/ㄷ/: 혀끝이 치조 부분에 닿고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천천히 내보낸다.

/ㅂ/: 두 입술을 붙이고 입술을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천천히 내보낸다.

/ㄱ/: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고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천천히 내보낸다.

/ㅈ/: 혀의 앞부분이 경구개에 닿고 조금만 떼면서 입안의 공기를 천천히 내보낸다.

/ㄸ/, /ㅃ/, /ㄲ/, /ㅉ/은 /ㄷ/, /ㅂ/, /ㄱ/, /ㅈ/의 조음기관과 방법을 같지만 발음할 때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공기를 막는다.

/ㅅ/: 혀끝을 치조 부분에 붙이지 말고 가까이 대고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천천히 내보낸다.

/ㅆ/: /ㅅ/의 조음기관과 방법이 같지만 발음할 때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준다.)³⁴⁾

- 3)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을 발음할 때 나온 공기의 세기가 다르다. 경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양은 가장 적고, 격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양은 가장 많다. 평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양은 두 음의 중간 정도이다. 즉: 격음>평음>경음. 이렇기 때문에 얇은 휴지를 이용하여 세기를 느껴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³⁵⁾ 이를 통하여 연음 발음할 때 /ㄷ, ㅂ, ㄱ, ㄲ, ㅈ, ㅉ, ㅅ, ㅆ/의 발음법을 익숙해지게 한다.

(학생들에게 얇은 휴지를 입 앞에 대고 '쁘, 브...'를 발음해 보도록 하고 평음과 경음을 발음할 때의 세기를 눈으로 확인하게 한다. 이 때 격음과 같이 '쁘, 브, 프...'를 발음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 과찰음과 마찰음의 혼동은 앞서 평음과 경음의 발음 연습으로 /ㅅ/, /ㅆ/, /

ㅈ/, /ㅉ/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교사가 /ㅈ/의 조음 위치가 연구개음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반복하여 발음 연습을 시킨다.

- 종성 /ㄹ/이 후행 모음과 연음될 때 탄설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래와 같은 /ㄹ/의 두 가지 변이음인 설측음과 탄설음의 조음방법을 알려준 후 /ㄹ/과 후행 모음의 연음 발음 연습을 시킨다.

(설측음 /ㄹ/을 조음 시에는 비록 혀 옆으로 기류가 빠져나가지만, 혀끝은 치경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 탄설음 /ㄹ/을 조음 시에는 혀끝이 치경에 아주 잠깐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이다.³⁶⁾)

5. 4의 발음 원리를 지도하고 1과 2의 내용으로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라. 사용 단계

사용 단계에서는 문장 차원에서의 연습을 통하여 실제 발화에서도 정확하게 연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읽는 속도는 점차 올리도록 지도하고,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속도로 올바른 연음을 발음하는 능력을 키운다. 문장을 읽은 후 받아쓰기 연습을 통하여 연음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익히게 한다.

1. 앞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문장을 읽을 때 적용시킨다. 이때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연음 발음 환경을 찾아내고 발음 나는 대로 쓴 후 읽기 연습을 시켜도 좋다.

아래의 문장을 읽으시오.

- 1) 찬바람이 불어서 추워요.
- 2) 신발을 신으세요.

34) 황미연(2012)의 자음 교육 방안을 참고하였다.

35) 허용·김선정(2006:63)에서 인용.

36) 범류(2010)의 /ㄹ/발음 조음방법을 참고하였다.

- 3) 밖에서 문을 닦아요.
- 4) 덜 익은 것이 맛이 없어요.
- 5) 시험을 보기 전에 책을 보세요.
- 6) 돈이 없어서 값을 물어 보지 않았어요.
- 7)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려요.
- 8)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섰어요.
- 9)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요?
- 10)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갔어요.

2. 빠른 속도로 읽으면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색하지 않은 느린 속도로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때 앞 단계의 자음 발음방법을 주의하면서 발음 연습하게 하는 것을 지도한다. 몇 번 반복한 후 속도를 올려서 읽게 한다.

3. 위에서 연습한 문장을 연음 발음 받아쓰기 연습을 통해 더 정확하게 익힌다.

받아쓰기 문장

- 1) 시험을 봐요.
- 2) 수업이 있어요.
- 3) 사람이 많아요.
- 4) 값을 물어 보지 않았어요.
- 5)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마. 마무리 단계

네 단계를 거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앞에서 학습한 연음의 원리를 같이 정리하고, 교사가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들을 판서로 제시한다. 오류가 생기는 연음에 대해서 다함께 발음해 보면서 연음 발음을 마지막으로 다시 점검해본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여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익히도록 할 수 있다.

2) 고급 단계 교육 방안

고급 단계에 들어가면 학습자들이 많은 발음 연습을 통해 한국어 연습의 원리를 익혔지만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극복할 수 없는 동일 자음 첨가 오류와 절음의 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초급 단계의 명시적으로 발음 규칙을 설명하기 보다는 이미 상당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고급 학습자들에게 교사가 음성 자료를 들려주거나 문자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배울 음운 내용을 추출하게 하는 탐구식 수업 유형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고급 학습자들은 탐구식 수업의 발견 학습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고급 단계 연습 발음 교육 방안은 초급 단계 교육 방안에서 사용한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탐구식 수업 유형을 활용해서 '도입→발견 및 이해→발음 규칙 적용 및 연습→발음 규칙 사용→마무리'의 교육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고급 단계 연습 발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고급 단계 연습 발음 교육 방안>

단원	연음 지도		차시	1차시
			대상	한국어5(고급반)
본시 학습 목표	-고급 학습자들에게 연음 발음 오류 유형 및 원인을 알게 하고 올바른 연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형태	모둠학습
학습 자료	학생	한국어 교재, 필기도구, 과제		
	교사	음성 자료, 연음 발음 지도ppt자료, 학습지		

가. 도입 단계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실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화자가 같은 문장을 읽은 음성자료를 학습자에게 들려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비교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음에 대한 학습 내용을 도입한다.

음성자료 내용

(보여줄 때 괄호 안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은 없다.)

- 1) 인간은([인간는]) 왜 사라진 예술품에 욕망하는가?
- 2) 섹스럽게 꾸민 닭이랑. 줄줄이([줄줄리]) 실에 맨 대추 말이지요?
- 3) 저 자신을([자신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위의 문장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 문장들을 읽은 음성 자료를 두 번씩 들려준다.
2. 학습자에게 음성자료의 발음은 정확한지를 묻는다.
교사: 여러분, 방금 들은 녹음의 발음이 정확한가요?
학습자: 네, 정확해요.
3. 한국인 화자가 위의 문장들을 읽은 음성 자료를 두 번씩 들려준다. 중국인 학습자가 읽은 음성 자료의 발음과 같은지를 묻는다.
교사: 첫 번째 녹음과 방금 들은 녹음의 발음이 똑같아요?
학습자1: 비슷한 거 같아요.
학습자2: 첫 번째 녹음 연음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교사: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음 발음 수업을 하겠어요.

나. 발견 및 이해 단계

발견 및 이해 단계에서는 교사가 첨가와 절음의 음성자료를 들려주고, /

/ㄴ/음 첨가 현상과 연음 현상의 차이를 보여주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급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게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리 준비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화자의 ‘인간은’의 음성자료를 들려주어서 학습자가 발음할 때 연음 양상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뚜렷하게 들리기 위해 교사가 직접 음성 자료를 반복하게 발음해서 시범을 보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2. 그런 다음 다시 도입 단계의 음성자료를 비교하여 들려준다. 이것으로 문장 차원에서 청각적인 인식을 높인다. 3. 학습자가 연음 현상에 대한 수업 내용을 인지하게 되고, 다시 들을 때 연음 현상을 집중하여 들을 것이다. 문장2의 /ㄹ/동일 자음 첨가와 문장3의 절음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4. 교사가 판서로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연음 현상과 /ㄴ/음 첨가 현상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음운현상의 적용 환경 차이를 발견하게 한다. (/ㄴ/음 첨가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그리고 /ㄹ/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하지만 연음 현상은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환경에서 실현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8 1435 608 1473">/ㄴ/음 첨가 현상</th> <th data-bbox="831 1435 1118 1473">연음 현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8 1473 608 160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맨입[맨닙] 신여성[신녀성] 한여름[한너름]</p> </div> </td> <td data-bbox="831 1473 1118 160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시간이[시가니] 반에[바네] 공간을[공가늘]</p> </div> </td> </tr> <tr> <td data-bbox="328 1648 608 177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울역[서울럭] 물약[물락] 휘발유[휘발류]</p> </div> </td> <td data-bbox="831 1648 1118 177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기술이[기수리] 겨울에[겨우레] 열어요[여러요]</p> </div> </td> </tr> </tbody> </table>	/ㄴ/음 첨가 현상	연음 현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맨입[맨닙] 신여성[신녀성] 한여름[한너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시간이[시가니] 반에[바네] 공간을[공가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울역[서울럭] 물약[물락] 휘발유[휘발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기술이[기수리] 겨울에[겨우레] 열어요[여러요]</p> </div>
/ㄴ/음 첨가 현상	연음 현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맨입[맨닙] 신여성[신녀성] 한여름[한너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시간이[시가니] 반에[바네] 공간을[공가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울역[서울럭] 물약[물락] 휘발유[휘발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기술이[기수리] 겨울에[겨우레] 열어요[여러요]</p> </div>						

5. 다음 내용의 음성자료를 들려주면 연음 현상에서 절음의 오류가 나타난 부분을 발견하게 한다. 그런 다음 슬라이드 자료로 아래 문장을 보여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절음 오류는 한자어와 조사의 연음 현상에서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한다.

- 1) 농촌에는 나이 든 노인들밖에 일할 사람이 없다.
- 2) 그는 필기시험에서는 늘 합격을 하면서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 3) 소금은 물에 잘 녹는 물질이다.

6.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습자와 같이 이 단계에서 제시한 고급 학습자의 연음 오류 양상을 정리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오류의 원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다. 적용 및 연습 단계

적용 및 연습단계에서는 우선 낱말 읽기, 문장 읽기로 반복 연습을 시키고, /ㄴ+ㄴ/, /ㄹ+ㄹ/과 /ㄴ+V/, /ㄹ+V/를 포함한 문장으로 연습을 시킨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스스로 동일 자음 첨가의 오류를 극복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짝 활동과 조별 활동의 형식으로 다양한 문장으로 구성된 읽기 자료로 발음 연습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고급 학습자의 연음 발음 오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1. 아래의 문장을 슬라이드로 보여준다. 교사가 먼저 문장에 있는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연음을 덩어리로 묶어서 칠판에 쓴다. 아래와 같은 발음 지도법으로 연음 발음 연습을 시킨다. 그런 다음 교사가 아래의 문장을 읽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듣고 따라하게 한다. 두 번씩 반복한다.
(발음 지도법: 교사가 먼저 선행 종성과 후행 모음을 가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초성과 중성만 읽게 한다. 그런 다음 초성과 중성을 가리고 중성과 후행 모음을 읽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습 연습을 시킨다. '물에'를 예로 들면: 교사가 먼저 'ㄹ에'를 가리고 '무'를 읽게 한 후, '무'를 가리고 '레'를 읽게 한다. 그런 다음 [무레]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아래의 문장을 듣고 따라 읽으시오.

- 1) 물에 열을 가하여 끓이면 물이 없어진다.
- 2)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없다.
- 3) 그들은 서로 단단한 울타리 안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 4) 그렇지 않아도 막 전화할까 하던 참이었다.
- 5) 집안이 썰렁하니까 불을 좀 때야겠구나.
- 6) 해결책은 다음에 생각해 보고 우선 문제가 생긴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나 하세요.
- 7) 교육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 성격의 단점을 고치려고 애쓴다.

2. 아래의 문장으로 연습 발음 연습을 시킨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ㄴ+ㄴ/, /ㄹ+ㄹ/과 /ㄴ+V/, /ㄹ+V/ 발음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동일 자음 첨가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래의 문장을 읽으시오.

- 1)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 2) 그는 지금 만나는 친구만을 좋아해요.
- 3) 안내원이 방 안에 있어요.
- 4) 딸을 말리기 위해 말을 많이 했어요.
- 5)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 6) 친구를 불러서 술을 마셨어요.
- 7)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눈에 들어갔어요.

3. 다음 학습지에 있는 문장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스스로 연습한 후 짝을 지어 서로 읽고 들어준다. 연습 발음 오류가 생기면 피드백을 해준다. 이를 통하여

절음의 발음 오류를 교정한다.

아래의 문장을 읽으시오.

- 1) 자신을 돋보이려고 지나치게 멋을 내는 여자는 싫다.
- 2) 간판의 글씨가 온통 영어로 되어 있다.
- 3) 그 결과 강원 농장의 건설을 위해서 실지로 든 돈은 3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 4) 병식이 다니는 신문사는 가뜩이나 재정 곤란으로 경영이 말썽이 아니었던 판이었다.
- 5) 수입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
- 6) 죽은 사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사람들은 흔히 미신이라고 한다.
- 7) 생일인데 선물은 고사하고 축하인사 한 마디 안 하더군요.

4. 5인 1조로 나누어 조별 활동을 한다. 조마다 해온 과제를 교환해서 읽기 연습을 한다. 연습이 끝나고 각 조별로 문장 읽기를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학습자 과제물 예시)

- 1)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
- 2) 그가 말을 더듬거리는데 뭔가 사실을 감추고 있는 듯싶군요.
- 3) 며칠 전에도 친척이 부탁을 해서 보험을 들지 않았나? 자네 월급으로 그 것들을 다 부어 가려면 힘들텐데...
- 4) 그 사람은 입이 가벼우니까 비밀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 5)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삼가야 됩니다.

라. 사용 단계

사용 단계에서는 영화 더빙하기 활동 유형으로 연음 발음을 활용한다. 이런 연습을 통해 앞 단계에서 한 연음 발음을 실제 발화처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연음을 포함한 음운 현상이나 억양 패턴 등을 연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연습 적용 능력과 한국어 발음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영화 <변호인>의 대본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러분이 아래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영화 더빙을 해보십시오.

(활동 방법: 학습자들을 10명 1조로 나누고, 충분히 연습하고 나서 조별로 발표하게 한다. 조별 과제로 녹음해 오도록 하여 다음 발음 수업 시간에 영화를 틀어 소리를 제거한 다음 학습자들이 녹음한 것을 함께 듣는다. 교사가 음운현상의 적용 및 리듬 등에 대해 지도해준다.)

강성희: (학습자1) 증인은 피해자 서정화 씨가 협조적이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위협해질 거란 생각은 안 했었나요?

증 인: (학습자2)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한 겁니다.

강성희: (학습자3) 남편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데, 어떤 아내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증 인: (학습자2)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성희: (학습자4) 누구로부터 보호받지요. 증인이 조금 전에 우연히 말한 사람으로부터요?

증 인: (학습자2) 전 범인이란 거 확신했습니다.

강성희: (학습자5) 증인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했지요. 증인의 확신을 위해서 누가 고통을 당하던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안민호: (학습자6) 이의 있습니다. 증인의 선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판 사: (학습자6) 인정합니다.

강성희: (학습자7)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게 증인의 주장일 뿐, 입증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증인의 단독소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관련자가 있습니까?

증 인: (학습자6) 아니오, 없습니다.

강성희: (학습자8) 본 사건은 서북부녀자 살인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관련자 없습니까?

증 인: (학습자9) 없습니다. 저 혼자 진행한 일입니다.

강성희: (학습자10) 마지막으로 물겠습니다. 서북부녀자 살인사건의 수사를 지휘했

던 담당 검사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증 인: (학습자9) 안민호 검사님이십니다.

강성희: (학습자9) 이상입니다.

마.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교사가 고급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연음 오류를 정리하고 강조한다. 교사가 슬라이드 자료로 연습한 문장 2개를 제시하고, 학습자와 함께 읽으면서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점검해본다. 또한 앞으로의 발화에서 주의하여 올바른 연음 발음을 하도록 유도한다.

VI. 결 론

한국어에서는 연음이 체언과 조사의 결합, 용언의 활용에서 즉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결합형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현빈도가 매우 높다. 중국어에서는 연음이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연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음 발음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숙달도에 따른 효과적인 연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I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음 발음 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기존의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는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를 결합할 때의 연음 현상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발음에 영향을 미쳐 발음오류를 쉽게 유발한다. 따라서 II 장에서는 이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 음절 구조, 연음 현상을 비교 대조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체계와 음운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대조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대치, 첨가, 탈락과 절음의 연음 발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III 장에서는 실제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음 발음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고의 실험은 산출 실험과 지각 실험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산출 실험은 중국인 초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각 15명을 선정하고, 피험자들이 배운 교재의 음운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한 읽기 자료로 발음 실험을 하였다. 지각 실험은 5명 표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고, 이들은 산출 실험의 녹음 자료를 청취한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 대로 음소전사를 하였다. 본고는 이 음소전사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발음 양상을 정리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실험을 통하여 추출된 연습 발음 오류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본 후 초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초급 단계의 오류에서 대치, 첨가, 탈락, 절음의 오류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고급 단계에서는 첨가와 절음의 오류만이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장애음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치의 오류가 나타났다. 또한 모국어 간섭과 한국어 연습 규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첨가, 탈락과 절음의 오류가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가 많은 발음 연습을 통하여 발음의 정확성을 높였고, 연습의 원리를 익혔기 때문에 대치와 탈락 오류가 없었지만, 청각적인 영향 및 연습 현상과 /ㄴ/음 첨가 현상의 혼동 때문에 첨가의 오류를 발생했고, 한·중 한자를 대응하여 외우기 때문에 절음의 오류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V장에서는 Ⅳ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숙달도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였다. 본고는 초급 학습자들이 처음 한국어를 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적절한 연습 발음 선행 중성 자음 제시 순서를 설계하였다. 또한 연습 발음 교육과 적합한 교육 모형을 선정하였다. 초급단계에서는 연습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선행 중성 자음의 발음 지도를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첨가와 절음의 오류 원인의 발견과 연습 발음 연습을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실제 중국인 학습자의 연습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토대로 숙달도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습 교육 방법론에 대

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실정에 기반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시한 연음 발음 교육 방안을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으로는 이 교육 방안을 실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수업에서 실천하여 교육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욱 유용한 교육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보유(2002),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강식진(2010), 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절음 음운변동 대조 연구, 『中國學』 第36輯
- 강현화(2004), 한국어교육, 『국어학연감』, 2004, 국립국어원, 75-95
- 고미숙(2000), 한·중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와의 관계연구, 『중국언어연구』 12, 한국중국언어학회
- 곡향봉(2005),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5), 『한국어교육론』 1•2•3, 한국문화사
- 권영미(2008),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길동(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남희(2011), 겹받침 발음의 사용 실태와 교수-학습 방안 - 서울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희(2009),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자(2012), 한국어 자음과 받침의 발음지도방안, 『중국조선문』, Vol.181 No.-
- 김연이(2011), 한국어 치조 마찰음 발음 교육 연구 -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만(2005),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 김용렬(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 자음동화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역(1998), 『외국어습득론』, 서울:한국문화(Ellis,R.(1985)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김은경(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음운 교육 방안,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애(2002), 발음 수업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은애(2006),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연구』 3, 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은(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중간언어와 오류분석,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지영 역(2000), 『제2언어학습 • 교수론』, 서울:형실출판사,(Cook.V(1996)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2nd ed., London: Champman and Hall, Inc.)
- 김지혜(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중성 발음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석(201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중성 발음 특성 연구 - 속달도 단계별 특성을 중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숙(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겹받침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복(2004), 한국어 음운 변동 규칙의 교수-학습 순서 연구, 『한국어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형복(2006),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복(2009), 한국어 Phonics를 통한 발음 규칙 교수-학습방안, 『코기토』 Vol.67 No.-
- 냉리나(2014),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음 발음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금송(2000),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대규(1986),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중심으로-, 『매지논총』 2, 연세대학교 내지학습연구소
- 노대규(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푸른사상
- DU FAN(2010), 자기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인식 및 수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마려평(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절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쓰야마 수미레(2010),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연구 - 발음 교정을 목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숙희(2013), 『한국어 발음 교육론』, 역락
- 박정곤(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오류 개선방안 연구: 자음의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호은(2012),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 음운 대조 분석과 학습자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범 류(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ㄹ’발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복희(2011), 한국어 발음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중국의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복희(2012), 『중국에서의 한국어 발음교육』, 한국학술정보
-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신지영 • 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심소희 역(2000), 唐作藩 著. 『중국 음운학』, 교육과학사
- 신현숙 외(2012),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I』, 푸른사상
- 안연희(2007),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임(2004), 한국어 음절 초성의 발음 교육 방안, 『국어교육』 113, 한국어 교육 연구학회
- 양순임(2004), 음절 말 자음과 관련된 변동규칙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Vol.15 No.3
- 양순임(2007), 연음규칙 적용에 따른 오류 분석 -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Vol.18 No.3
- 延邊大學韓鮮韓國語學院(2013), 『基础韓國語』 1,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延世大學韓國語語學堂(2007), 『韓國語教程』 1, 5, 世界圖書出版社

- 오순희(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단모음 발음 교육 방안 연구 - 한중 동형한자어에서의 간섭현상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 로(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 - 발음오류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王雅娟(2008), 한국어의 음운체계 및 음운현상에 대한 지도방안 - 중국인을 대상으로-,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 광(2010), 중국인을 위한 초급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발음 부분을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형식 외(2011),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수법』, 한글과컴퓨터
- 유하나(2013), 지각 훈련을 활용한 한국어 분절음 교육 방안: 입문 단계의 일본인 학습자의 평음, 유기음, 경음 습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 정(2011), 중국인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정(2013), 한국어 교재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발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漢城語文學』, Vol.32 No.-
- 윤영해(2008), 중간언어 음운연구를 바탕으로 한 발음교육의 효과연구, 『한국어교육』 19권 2호. 이중언어학회
- 이득춘(1991), 중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15 No.1
- 이수연(2005), 곽받침 체언의 표준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연(2010),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발음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이주행(2002), 한국어의 발음 교육 방법: 중국인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20, 59-280
- 이진호(2001), 국어 비모음화(鼻母音化)와 관련된 이론적 문제, 『국어학』, Vol.37 No.-
-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창진(2008), 초등학교 국어과 받침 발음 지도 방안,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숙(2012), 한국어 교육에서의 효율적인 발음교육 방안 연구 -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林焘 • 王理嘉(2013), 『語音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 장설교(201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규칙 습득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우균(2009),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우혁 • 김길동(2009), 중국어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 『언어연구』, Vol. 26 No.3
- 장향실(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절 오류와 교육 방안, 『우리어문연구』, 34, 349-371
- 전나영(199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18 No.1
- 전나영(2007), 한국어 발음 지도법,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 정정덕(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 - 한국어 발음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8집
- 정호성(2003), 『주요 어휘 용례집』, 국립국어연구원
- 조민하(2005), 일본어와 영어권 학습자들의 어두 폐쇄음 발음 오류 유형 연구 -평음, 경음, 기음의 실현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9, 한국어학회
- 주명진(200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발음오류와 변이음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진교어(2008), 영화 • 드라마를 활용한 과정 중심 한국어 듣기 수업모형 연구 -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영수(2003),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에 대하여, 『한글 새소식』 366권, 한글학회
-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최향란(2011),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오류 교정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이진단(2004), 중국어권 한국어실험 참여자의 발음 오류 양상 분석을 통한 중국어 장애음의 한글표음 문제 재검토, 『중국언어연구』, 18, 321-339.
- 하동매(2001), 초보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해결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 태학사
- 한서인(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규칙 교육 방안 - 연음 규칙과 겹받침 규칙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허용 • 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 허용 외(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황미연(2012),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음 발음 오류와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of Chinese – Focused on Connected Speech Phenomenon –

Tang, He-N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teaching method of Korean connected speech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of Chinese. When syllable is combined in Korean language, connected speech is taken place if front syllable is pulmonary sound and back syllable is started with vowel. Connected speech is taken place not only in word but also in combination of a noun with auxiliary word or utilization of predicate. In Korean language, expression frequency of connected speech phenomenon is very high inevitably as auxiliary word is used frequently and even in utilizing predicate, word ending started with 'eu'(으) is frequently combined to word ending. As connected speech is prohibited in Chinese language, Korean language learners of Chinese experience difficulty in

pronouncing connected speech of Korean language. Notwithstanding thi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etting, education and training of connected speech is unsatisfactory in re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an education method of connected speech for Korean language for Chinese learners is intended to be suggested in detail by comparing phonological features of two languages including Korean and Chinese and analyzing the result of connected speech pronunciation test by directly targeting Chinese learners.

In Chapter II, for providing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discussion, Korean/Chinese consonant system, syllable structure and connected speech phenomenon were contrastively compared. Through this,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Korean/Chinese phonemic system and phonological phenomenon were identified and error type that may be committed by Chinese learners due to such difference was forecasted.

In Chapter III, an experiment for providing an education method was explained. An experiment of this study was progressed in two stages: elicitation experiment and perception experiment. In case of elicitation experiment, pronunciation test was performed based on selected reading materials considering phonological environment learned in teaching material by test subjects after selecting each 15 persons from Chinese beginners and advanced learners. Perception test was performed by targeting 5 Koreans who use standard Korean and after having those subjects hear recorded data of elicitation experiment, phonetic transcription was performed as the sound is heard. In this study, based

on phonetic transcription, connected speech pronouncing aspect of Chinese learners was arranged.

In Chapter IV, aspects being extracted through study methodology of Chapter III were arranged. Phonetic transcription contents of 5 perception test subjects were presented in frequency. In beginner stage, error of confrontation, addition, separation and mutilation was generally represented but in advanced stage, only error of addition and mutation was represented. As beginners are unable to identify phonetic location and method of individual Korean syllable well, error of confrontation was represented and due to interference of native language and lack of recognition for connected speech rule of Korean language, error of addition, separation and mutation was represented. It could be seen that in advanced learners, error of addition was represented due to auditory effect and confusion of connected speech phenomenon and a phenomenon of adding /ㄴ/sound and as they learn by heart by corresponding Korean to Chinese character, an error of addition and mutation was taken place.

In Chapter V, a suitable education model was selected by setting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 depending on proficiency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of Chinese and considering Korean language level of learners based on the result of Chapter IV. And then in beginner stage, an education method was suggested based on detailed explanation of connected speech principle and pronunciation guidance of preceding last consonants that are felt to be difficult by Chinese learners and in

advanced stage, based on discovery of error cause for addition, mutation and pronunciation practice of connected speech.

It is expected that education method of connected speech pronunciation being explored based on error aspect and cause of connected speech pronunciation by actual Chinese learners would provide a basic data that was not concretely handled so far in connected speech education methodology by targeting Chinese.

<부록 1>

한국어 발음 테스트 녹음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 및 녹음 내용은 저의 석사논문 참고 자료로 쓰일 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녹음자의 기본 정보

이름: _____ 성별: 남 / 여
출생년도: 19__년 출생지: ____성 ____시(현)
한국어 학습기간: _____

II. 초급 단계 읽기 자료

1. 읽으십시오.
2. 물건값이 비쌌습니까?
3. 거기에는 아이들 옷이 많았습니다.
4. 한식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5. 200페이지까지 읽었습니까?
6. 돈이 없으니까 안 샀습니다.
7. 의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8. 예쁜 꽃을 가지고 갔습니다.
9. 사람이 많으니까 문쪽으로 가십시오.
10.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늦었습니다.
11. 옷을 입어요.

12. 사전을 찾아요.
13. 방이 참 넓어요.
14. 그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15. 여기 앉아서 기다립시다.
16.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요.
17. 그 분은 내일 한가하니까 집에 있을 거예요.
18. 김 선생님이 전화를 받을까요?
19. 밖에 누가 왔어요?
20. 소포를 찾으러 갑니다.
21. 삼월이니까 꽃이 필 거예요.
22. 앞으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23. 1급이어서 잘 하지 못합니다.
24. 모르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25. 우리 내려가서 나무 그늘에 앉읍시다.
26.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27. 넓은 바다가 참 좋았어요.
28. 지금 밖에 비가 오는군요.
29. 문을 닫읍시다.
30. 꽃이 피었습니다.
31. 값은 비싸지만 질은 좋아요.
32. 책을 읽은 후에 말씀해 주세요.
33. 처음에는 우리 팀이 질 것 같았습니다.
34. 떠나기 전에 전화하세요.
35. 비자를 받으러 갑니다.
36. 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37. 밖으로 나가세요.
38.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는 러시아예요.
39.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부록 2>

한국어 발음 테스트 녹음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 및 녹음 내용은 저의 석사논문 참고 자료로 쓰일 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녹음자의 기본 정보

이름: _____ 성별: 남 / 여
출생년도: 19__년 출생지: ____성 ____시(현)
TOPIK등급: _____

II. 고급 단계 읽기 자료

1. 그밖에도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네.
2. 제 아버 똥아서 키도 크고, 아주 대장부값이야.
3. 섹스럽게 꾸민 답이랑, 줄줄이 실에 맨 대추 말이지요?
4. 대개는 말끝을 분명히 하지 않고 흐려 버립니다.
5.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혼인 날짜를 신랑집에 알리어 서로 합의하면 약혼이 되는 것이다.
6. 함진아버들 일행은 의기양양하게 비싼 값이 아니면 안 팔겠다고 장난 섞인 투정을 한다.
7. 저 자신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하여간 붙어야 내가 한턱을 크게 얻어먹을 텐데.
9. 영화에 주로 악역으로 등장하는 배우도 있다.
10. 덜어놓고 안 쓰는 것만이 제일은 아니니까.

11. 두 세대간의 격차를 없애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
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2. 또 사랑의 몸짓을 하면서 생명력에 대한 다짐을 하고, 생리적인 체중도
뚱었다고 할 수 있다.
13. 아버지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기분이 언짱으신가 봐.
14.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괜히 눈물이 쏟아지고 옛날에 하찮은 일로
다툼 게 다 후회 슥더군요.
15. 내 뒤에 앉아 있는 애가 오늘도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내 말 흉내를 내지
않겠니?
16. 바지통과 치마통이 넓어서 의자가 아닌 방바닥이나 마루 바닥에 앉기에
너무나도 편하다.
17. 숨기고 싫어하는 한국인의 수줍은 성품을 잘 보여 주는 옷이다.
18.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일없이 집에서만 뒹구는 것 같아서 소일거리를 찾
던 참이였어요.
19. 그 집은 우리하고 똑같은 25평인데 왜 그렇게 넓어 보이지?
20. 어딜 가나 겪어야 하는 일이니 무슨 해결책이 나와야겠지요.
21. 귀가 길에 컴컴한 곳에서 누군가 쫓아와서 기절할 뻔했다면서요?
22. 늦었는데 속히 출발하지 않고 뭘 꾸물대는지 알 수가 없군요.
23. 문제는 인간이 앞으로도 현재의 생활 방식을 지속시키느냐 획기적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24. 곧 적금을 찾을 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무이자로 빌려 드릴게요.
25.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읽어보았는데 그 소설이 어떻다고 해요?
26. 양심적으로 더 받을 수는 없지만 되돌려 주기 싫을 때도 있지.
27. 너무 늦었으니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다들 집에 갑시다.
28. 그분보다 발이 넓은 분은 제 주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29. 선배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읽으니까 모호했던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
30. 탈춤은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 둥글게 울타리를 만

들어 그 판이 저절로 무대가 되고 또 극장이 되어 한테 어울린다.

31. 조심한다는 것이 이렇게 또 실수를 해서 정말 별 낮이 없습니다
32.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표정이 밝으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33. 위수술을 받으셨으니 음식물은 안 될 테고...꽃을 사 갑시다.
34. 도련에 무엇이 묻어서 못이 지저분하구나.
35. 봄이라서 그런가. 꽃이 있어서 그런가?
37.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산하는 일만 해서 지루하고 짜증도 나련만.